

중국을 주께로

제 11 호 1991. 3/4

你們要去，使萬民作我的門徒，奉父子聖靈的名，給他們施洗。凡我所吩咐你們的，都教訓他們遵守。我就常與你們同在，直到世界的末了（馬太福音 28 章 19~20 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 장 19~20 절)



(흑룡강성 어느 처소의 예배 모습)

中國語文宣教會

차례

- 선교일언
선교를 하려면... 석귀희/ 1
- 말씀묵상
창세기 33:14 번역부/ 2
- 정기세미나
중국의 교육제도 김베드로/ 3
중국선교의 전략 김복남/ 8
- 중국기독교인물소전
중국과 서양의 우수한 품성을
겸비한 성공회의 명망있는 목사 연구부/ 12
- 중국 기독교토착화의 필요성과
가능성(Ⅱ) 연구부/ 15
- 중국어로 찬양을
你是榮耀君王 / 21
- 중국어 성경공부
예수님의 승천 방송대서울성경반/ 22
- 종교와 중국전통문화
중국의 원시종교와 원시문화 번역부/ 24
- 대륙성도의 간증
내 평생에 주의 은혜가... 번역부/ 28
- 대만연수기
에벤에셀의 하나님 안지훈/ 32
-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 활동상황 / 34
- 중국어문선교회 각 부서 활동보고 / 36
- 최근 중국 동향 / 38
- 소식 / 46
- 회원동정 / 47
- 기도편지 / 48
- 알림 / 49

선교를 하려면...

석 귀 희 (본선교회 출판부 간사)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부르고, 그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선교지에 토착교회(Indigenous Church)를 설립하여 주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선교지인 중국에 직접 복음을 들고 가지는 않았지만 문서로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국어문선교회 우리들도 작은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제가 선교회에서 일하면서 보고 느낀 것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를 하려는 사람의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히11:8) 것처럼 부르심이라고 확신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결단해야 하고 이사야 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주변인들로부터의 반대 때문에 때로 고독과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주를 위한 『거룩한 고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댐나무 밑에서 차라리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엘리야가 부르짖었을 때 동역자를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일할 자를 예비해 놓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두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 헌신해서 선교를 하면서 물질에 대한 염려와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평강을 얻지 못한다면 그 선교는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물로 성큼 내려와서 잠시 물 위를 걸었으나 일어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람을 제압하시고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만을 본 고로 그만 공포심에 사로잡혀 그로 인해 실패했습니다(마14:29~30).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빌4:19)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에(갈2:20)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아야(막8:34)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서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과 생각만을 내세운다면 선교를 하면서 동역자들의 거침돌이 될 것입니다.

선교를 할 때 무엇보다 먼저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 몸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는 결코 무겁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날이 확장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좇아가노라”(빌3:13~14)

할렐루야!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창세기 33: 14)

□ 단어 설명 □

이것은 정말로 한 폭의 아주 잘 묘사된 그림으로 가족과 아이들에 대한 야곱의 자비한 마음을 묘사한 것이다.

그는 그들이 하루의 여정을 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에서의 거치른 마음을 따라서 그들을 재촉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그들의 힘대로 천천히 그들을 인도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그의 자녀들이 어리고 연약하며 소와 양 역시 젖먹이임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하루 동안에 걸을 수 있는 길이 얼마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후에 비로소 그들의 여정을 안내했다. 게다가 이 광야 길을 이전에 일찍이 지나온 적이 있는 그로서는 어느 곳이 험난하고, 어느 곳이 위험하고, 어느 곳이 덥고, 어느 곳이 추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나는 천천히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왜냐하면 이 길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걸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수3:4)라고 말했던 것이다. 앞에 놓인 길을 우리들은 아직까지 가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가보셨다. 아마도 이 길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없게 만들고, 기진맥진하게 할지도 모른다. 또 어떤 길은 우리들로 하여금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만큼 목마르게 하고, 또 숨가쁘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들은 이전에 주 예수께서는 모두 당해 보셨고, 걸어가 보셨던 길이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요4:6)라고 말씀하고 있다. 많은 물이 그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의 여정은 그치게 할 수 없다. 그가 겪었던 고난은 그를 가장 좋은 목자로 만들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도임을 기억하심이로다.」(시103:14)

그는 언제나 우리를 체휼하셔서(우리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힘에 겨운 길을 걷도록 하지 않으신다. 앞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안심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그분께서 힘을 더해주시지 않을 때에는 즉시 발걸음을 멈추라고 명령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 惟妙惟肖 wéimiào wéixiào 모방이나 묘사를 매우 잘해서 진짜와 같다.
- 圖畫 túhuà ①그림.도화 ②한 토막. 한 장면
- 描寫 miáoxiě ①묘사(하다) ②본 떠 그리다.
- 慈心 cíxīn 자비심
- 趕走 gǎnzǒu 쫓아내다. 내몰다.
- 粗 cū (성격이나 행동 등이)우악스럽다. 거칠다. 경솔하다.
- 催促 cuīcù 재촉하다. 독촉하다
- 嬌嫩 jiāonèn ①가냘프다. 연약하다. ②무르다. 망가지기 쉽다.
- 曠野 kuàngyě 광야.
- 凶險 xiōngxiǎn ①아주 위험하다. ②위독하다
- 向來 xiànglái 본래부터. 여태까지. 줄곧
- 心慌意亂 xīnhuāngyìluàn 마음이 어지럽고 생각이 산란하다.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 筋疲力盡 jīnpí lìjìn 기진맥진하다
- 乾渴 gānkě 매우 목이 마르다.
- 舌貼牙牀 shétiē yáchuáng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다. (갈증이 심함을 나타 내는 말)
- 困乏 kùnfá ①피로하다. 피곤하다. ②(생활이)곤란하다. 곤궁하다.
- 沖淹 chōngyān ①(물에) 빠지다. 침수하다. ②(물이) 덮치다.
- 息滅 xīmiè ①(불을)끄다 ②소멸시키다. 소멸하다.
- 不過 bùguò ① ~에 지나지않다. ② ~에 불과하다.
- 過于 guòyú 지나치게. 너무
- 塵土 chéntǔ 먼지
- 體恤 tǐxù 그 입장이 되어 생각하다.
- 儘可 jǐnkě ①오직. ②차라리 ~지언정
- 安然 ànrán ①무사하다. 평온하다. ②태연하다. 마음놓다.
- 喘 chuǎn 혈떡거리다. 숨을 돌리다.
- 嘗 cháng ①맛보다. ②경험하다. 당하다.

(原文：「荒漠甘泉」중에서)

一月三日

「我要量着在我面前羣畜和孩子的力量慢慢的前行。」(創三十三章十四節)

這真是一幅惟妙惟肖的圖畫，描寫雅各對羣畜和孩子的慈心！他不願意他們趕走一天的路程。他不願意照粗人以掃的心意去催促他們。他乃是量着他們的力量慢慢地領他們前行。他知道他的兒女們年幼嬌嫩，牛羊正在乳養的時候。他知道他們一天能行多少路；他考慮了然後纔安排他們的行程。而且這條曠野的路程，以前他也曾走過；何處崎嶇、何處凶險、何處炎熱、何處寒冷，他都經歷過。所以他對他們說：「我要慢慢地領你們前行。」「因這條路你們向來沒有走過。」(書三章四節)

前面的路程我們也向來沒有走過，可是主耶穌曾走過。我們的前途真是茫然無所知，可是主都經過。這一程使我們心慌意亂，那一程使我們筋疲力盡，另一程使我們乾渴得舌貼牙牀，又一程使我們喘不過氣來——其實以前主都嘗過、走過。經上說：「耶穌因走路困乏。」(約四章六節)衆水沖淹祂，却不能息滅祂的愛情。祂所經歷的苦難使祂成爲最好的牧者。「祂知道我們的本體，思念我們不過是塵土。」(詩一百零三篇十四節)祂每時每刻體恤我們；不讓我們走一步過於我們力量的路。前面一程雖然有些難行，但是儘可放心；因爲祂不是加力量使我們得以安然過去，定是吩咐我們突然止步。——海弗格爾



중국의 교육 제도

김 베 드 로 (KCIT 사무국장)

중국선교를 생각할 때 많은 선교기관들이 중국의 종교정책과 교회의 현황을 조사하고 면밀히 연구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들이 대 중국선교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위해 반드시 중국의 사회주의 교육정책과 교육사상 등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본 세미나의 내용이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약간의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중국의 교육제도이므로 교육제도의 본질과 교육제도의 변천 그리고 현 중국대학교육제도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 지면관계상, 현 중국의 대학교육제도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1.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과 기능

중국의 교육자 劉壽祺는 그의 저서 「中共教育學」에서 “공산주의 사회의 교육의 목적은 무산계급이 전 국가권력을 확고히 하도록 돕는 데 있는 것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발전과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여 다음 단계인 공산주의 국가건설에 대비하는 데 있기도 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구체화 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을 통해서 마르크스주의 선전을 확대하고 혁명이론을 전파하며 젊은이들에게 계급투쟁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과학기술을 통하여 생산투쟁의 기초지식을 쌓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서 볼 때 사회주의는 교육을 계급투쟁과 생산투쟁에 있어 하나의 도구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학교 교육의 임무도 오로지 무산계급적이 아닌 사상의 의식과 행위가 청소년들에게 침식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지덕체를 겸비하고 전문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할 혁명 인재를 배양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개방 실시 이후, 외국인 영어교사와 전문기술의 교수진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의 자본으로 세워지는 사립대학의 허가와 기능훈련원과 같은 기술방면의 외국교수진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자세의 변화는 사회주의 교육목적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사회주의 교육철학

사회주의는 앞에서 말한 바처럼 교육을 정치하위에 속하는 계급투쟁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인간을 환경과 교육의 산물로 인식합니다. 심지어 사회적 조건이 인간의 성격형성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교육철학의 사상적인 논리를 정리해 보면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결정론(環境決定論)입니다. 이는 마르크스의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다.”는 말에 의거한 논리로서 사람은 일종의 소질만 타고 나는데 사회적 환경에 따라 이들 재능이나 지혜, 의지 등이 발전하고 더 나아가 인간은 주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인간의 본성까지 개조할 수 있다는 철학입니다. 파브로프의 “조건반사설”을 과학적 검증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둘째는 전면발전론(全面發展論)입니다. 이는 체력노동과 교육과 체력노동의 결합가능성이 증명되었다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근거하여 발전한 논리로서 마르크스는 전면발전교육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는 교육에는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육, 둘째는 체육학교나 군사훈련학교에서 단련시키는 체육, 세째는 기술교육으로 일체의 간단한 생산도구의 사용법을 숙달케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노동자 겸 농민, 농민 겸 노동자, 노동자 겸 병사, 병사 겸 농민, 지식인인면서 노동자인 자를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간으로 보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째는 차별소멸론(差別消滅論)입니다. 이는 소련이나 중국 모두가 추구하는 교육지표로서 농공간의 차별, 도농간의 차별, 육체노동과 두뇌노동간의 차별을 소멸한다는 주의입니다. 문화혁명 초기에 지식분자의 노동자화, 노동인민의 지식인화를 가능케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나타난 것에 지식분자의 개조운동인 “清查”가 있습니다. 또 노동자를 위한 대학인 五、七大學과 七、二一工人大學, 등이 76년에는 무려 1만 6천여 개까지 생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모두 차별소멸론의 논리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째로는 정치우위론입니다. 모택동은 레닌의 말을 인용하여 “경제는 기초이고 정치의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라 말하면서 정치우위론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모택동의 주장으로 인하여 중국은 4人幫이 축출되기까지 문화대혁명이란 엄청난 혼란 속에 특히 교육의 폐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천안문사건을 통해서도 아직 정치우위론이 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주의 교육철학의 4가지 사상적 근거를 살펴 보았는데 특히 중국의 교육사상을 자세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모택동의 교육사상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제도의 변천을 설명하면서 약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국교육제도의 변천

1) 청말시기의 교육제도

중국은 1902년에 청정부가 새학제를 반포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형태의 학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學制는 형식상으로는 일본의 학제를 취하였으나 교육상의 내용은 讀經尊孔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1922년에 와서 북양 군벌정부가 신학제를 제정하였는데 이름하여 壬戌學制라고 했습니다. 바로 6.3.3 학제로서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으로 구분되는 이 학제는 중국교육학제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2) 延安時期的 교육제도

이 시기는 모택동이 국민당 정부와 전쟁을 하던 때였으므로 교육이 전쟁의 수요에 이바지함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교육)체계를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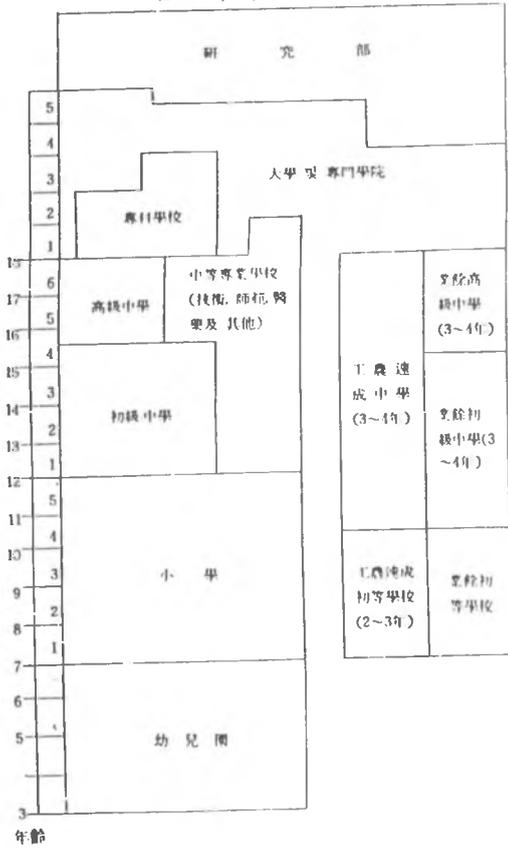
이 교육체계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일반군중교육으로 나누고 초등교육 중 초급소학교육과 일반대중교육을 군중교육이라고 했으며 초등교육 중 고급소학교육과 중등교육은 간부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의 학제의 기본특징으로는 첫째 간부교육과 군중교육의 병행 실시, 둘째 대중의 현실적 요구에 맞도록 노력했으며 학교경영형식도 통계 학교, 반일제 학교, 야간학교, 일요일학교, 순회 학교, 단기훈련학교 식자반 등이 있었습니다. 세째 전쟁중이었으므로 민간인 자체적으로 운영경비를 마련하였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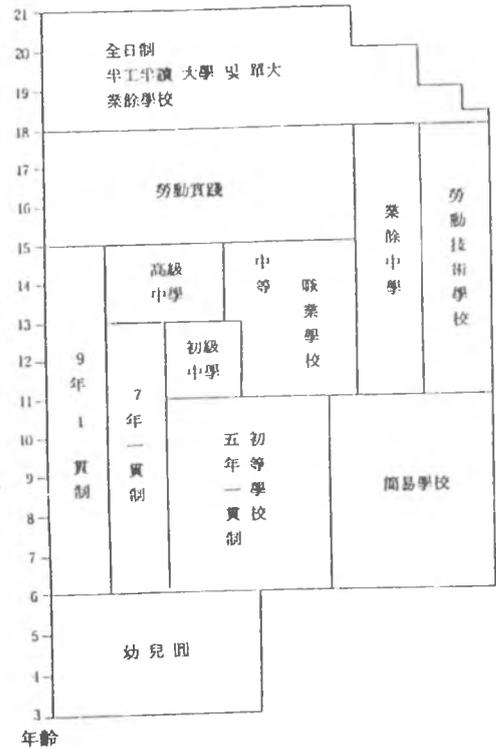
3) 해방후의 학제 (51-66년)

중공초기의 학교교육제도는 전통 구학제를 개혁한것으로서 새 정치질서와 경제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학제는 유아교육(유아원), 초등교육(소학교), 중등교육(전문학교), 고등교육(대학과 대학원) 및 각급 정치학교, 그리고 이밖에 정치훈련반과 농아, 맹아 등의 특수학교를 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소련 교육제도에서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1951年の學制改革>



<文革期の學制>



4) 문화혁명기의 학제 (66년-76년)

문혁기간의 학제는 문혁 전과 비교할 때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업 성격상 全日制와 半工半讀制 그리고 業餘制의 3개 유형이 뚜렷이 구별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66년 8월 8일 중공중앙은 중국대륙 10억 인구를 '천하대란' 속에 몰아넣는 문화대혁명의 강령인 '무산계급 문화혁명에 관한 결정'이란 것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에 교육에 관한 사항들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번 문화대혁명에서 자산계급 지식분자가 우리들의 학교를 통과하는 현상을 근절시켜야 한다.

② 각급 학교는 반드시 毛澤東 주석이 제기한 "교육은 무산계급정치를 위해 봉사해야 하고 교육과 노동의 상호결합과 피교육자의 전면발전방침"을 관철해야 한다.

③ 학제는 단축해야 하고 학과과정 설치의 정

선하여 간소화하며 "학생은 學을 주로 하고 다른 것도 겸하여 글을 배울 뿐만 아니라 工도 배워야 하고 農도 배워야 하고 軍도 배워야 하고 자산계급도 비판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강령에 따라 중국은 이때부터 10년간 대학입시방법의 철폐, 대학학제의 단축, 공장과 학교를 결합한다는 신체제의 등장과 차별소멸론에 근거한 농민노동자의 대학생 입학정책, 이로 인한 五,七六大學, 七,二一大學의 증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76년에는 이러한 학교가 무려 1만 6천여개로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 하였습니다. 교재의 개혁, 교육방법의 개혁, 학교 행정권력구조의 개혁 등 교육 전반에 대한 혁명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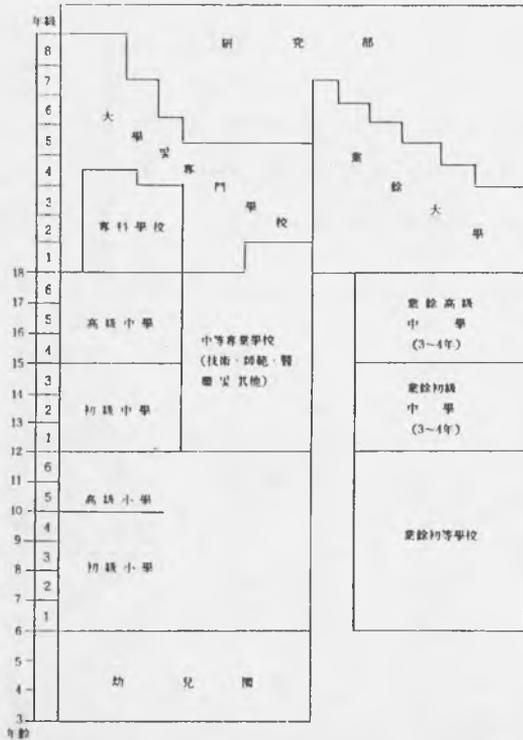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혁명이며 위대한 실험으로 자찬되어 온 文革과 文革期の 교육혁명은 중국의 역사발전을 10년 후퇴시킨 대참화로 표현되었고 이를 주도한 4인방은 결국 역사의 장에서

축출되었습니다.

5) 文革後의 학제

문혁의 청산과 교육에 대한 전면재조정의 서막으로 대학입시제도와 전국통일시험이 1977년 10월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文革後 學制 改革>



문혁 후의 대학교육의 재조정은 무엇보다도 인재양성에 집중되어 중점대학이 지정되었으며 수리능력의 조기개발을 지향하는 영재교육이 생겨났습니다. 질서있는 교육체제의 정비 일환으로 대학총장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교수들의 직급제가 확립되었으며 학위제도도 부활시켰습니다. 문혁기간 중 대학에서 추방되었던 대부분의 교수 및 지식인들이 복직되었고 오히려 사상성만으로 교수가 되었던 자들이 직위와 권한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노동자와 농민이 교수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현대화 달성을 위해서는 "차별소멸론"의 부분적인 부정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때부터 중국은 학술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즉 78년 이후부터 많은 수의 유학생들을 해외에 파견하며 학

술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입시에도 영어, 러시아어, 불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를 외국어시험으로 부과하였으며 현재는 국민학교 3학년부터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 현행교육제도

80년대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문혁 이전의 학제로 복귀하는 데 있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11억이 넘고 다민족국가이므로 각지역의 각민족의 경제, 문화발전의 균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욱이 사회주의 건설과 발전이란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청소년들에게 같은 교육의 기회와 취업의 균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국가는 각급, 각종의 학교의 수를 안배하고 전일제 교육, 전일제 대학의 육성 발전과 보조학제인 반일제 수업, 통신교육, 여가학교 등을 두어 학교경영의 다양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종적 계통으로는 취학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연구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횡적 계통으로는 전일제(全日制)학교, 반일제(半日制)학교, 업여(業餘)학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제도는 이론상으로는 오히려 자본주의국가보다 사회교육의 제도와 교육기회가 더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와 대학교수진의 경우 학교,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하며 교사들의 사회적 위치와 권위가 상실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경비의 절대적 빈곤으로 인하여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실험, 실습기자재의 각종시설의 보충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교육제도가 약 30년 동안 개혁·조정·혁명·재조정의 과정을 겪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혁의 원인은 통치자가 마음 먹기에 따라 교육이란 한낱 장남감처럼 개조할 수 있는 사회적 체제였기 때문이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인식하는 사회의 불행인 것입니다. ☹



중국선교의 전략

김복남 전도사

멸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멸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

1.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종교사상

(1) 칼막스의 종교관

“반 종교적 비판의 기초는 인간이 종교를 만든 것이지 종교가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 . . 종교는 억압된 삶의 탄식이며 또한 그것이 혼 없는 상태의 몸임과 같이 그는 무정한 세계의 감정이다. 즉 그것은 민중의 아편이다. . . . 진정한 해방은 종교를 정치에서 즉 국교제도에서 해방하는데 그칠 뿐 아니라 진실로 인간을 종교에서, 즉 환상에서 해방하는 데 있다. . . . 헬라인에게서는 세계 밖에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는 하늘의 푸른 안개 속에 사라지는 이 감정을 지상의 현실인 사회개혁으로써 실현하는 것이다.” (헤겔의 「법률철학비판」 서론)

(2) 엥겔스의 종교관

“종교는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외력이 인간의 두뇌에 공상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써 이 반영속에서 지적 힘이 천적 힘의 형식을 하는 것이다.”



(3) 레닌의 종교관

“종교는 이 세상에서 가난과 병에 시달리는 자에게 삶을 포기하도록 가르치며 이들에게 하늘나라에서는 보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위로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종교가 이들에게 지상의 생활에

서 자비롭게 됨을 가르치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실재는 착취를 값싸게 정당화 시키고 있으며 또 그들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표를 팔고 있는 것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인 것이다. 종교는 일종의 마취제이며 이것은 자본의 노예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간성과 욕망을 어느 정도 높은 사람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다.”

(4) 류게네스의 종교관

“신이라는 것은 몽매한 시대에 인민들이 숭배한 일종의 우상으로서 우주의 창조자로 여호와를 섬기기에는 인류가 너무도 개발되었고 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 . 아담은 없다. 그러므로 타락도 없고 타락이 없기 때문에 속죄도 없다. 속죄가 없으니 구세주는 필요없다.” (「신과 이웃」, 소련 사회 과학자)

(5) 포이엘 바하의 종교관

“종교는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하나님은 없다. 삼위일체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즉 종교란 자연과 인간성과의 가상적이요 표면적 본질을 그 진실적 내적 본질로 생각하고 그래서 물질적인 본질의 하나를 다른 본질로 표상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본질」)

(6) 김일성 종교관

“종교는 미신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종교는 비과학적입니다.” (「북한의 종교정책」, 고태우)

2. 중공의 종교정책

(1) 중국은 1949.10.1 공산 혁명이 승리한 후 단계적으로 종교를 탄압, 말살하여 왔다.

① 1949년 이후 중공은 공산당의 영도하에 종교인들을 점진적으로 개조하는 정풍운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1954년 7월 북경에서 “전국기독교회의”를 하고 교회를 “삼자애국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부르도록 하였다. 동시에 목사들에게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

양을 강화하면서 당 정치학습을 강요했으며 기독교 교리를 믿지 못하게 억압했다.

② 중공당국은 두번째 단계로 교회들을 국가에 흡수해 버리고 교회의 독자적 활동을 억제하였다. 그 대표적 실례로 1957년 여름 중공당국은 “사회주의 학습운동”을 벌이고 종교인들이 무조건 그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1958년 대약진운동이 벌어지자 그와 병행하여 목사와 종교인들이 당 정치학습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였다. 동시에 “목사들은 노동자 농민들을 사기, 협잡하여 돈을 벌며 독재자와 자산 계급에게 봉사하는 건달이다.”는 구호하에 노동현장에 추방하여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 후 교회에 목사들이 없게 되자 교회 건물과 토지들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삼자애국운동 단체들의 발기가 있었다. 그 결과 상해와 북경에서만도 250개의 교회가 국유화되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교회가 지하로 들어갔으며 전국 도처에 지하교회가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③ 세번째로 중공 당국은 문화대혁명 기간에 많은 종교인들을 살해하고 해외로 추방하였으며 얼마 되지 않던 교회마저 파괴하였다.

1966년 8월부터 발생한 문혁은 홍위병들이 구사상, 구문화, 구종교, 구습관을 타파한다는 난동과 함께 종교인들을 반동으로 몰아 살해하였다.

(2) 1979년 등소평의 복귀로 중공은 온건노선을 채택하고 종교정책의 극좌경적 오류들을 시정하고 “삼자애국운동”을 부활시켜 기독교를 재건하게 하였다.

대표적인 실례로 1978. 12. 당중앙 11기 3중 전회의 이후 통일전선사업부 중앙위원회가 1979. 3. 재건됐으며 4월에는 종교사무국도 설치되었다. 동시에 교회가 허가됐으며 예배의식이 시작되었다.

1979. 8. 삼자애국운동 상해위원회가 부활됐으며 대도시마다 삼자교회가 다시 설립되어 합법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1980. 10. 남경에서 제3회 전국기독교회의를 한 후 삼자애국운동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재조직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동시에 중국 기독교협회가 만들어졌다.

(3) 1980년 이후 중공당국은 모든 교회를 엄격히 통제하는 살벌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실례로 1982년 새로 채택한 중공의 헌법 35조 2항을 보면 그들의 종교정책을 잘 알 수가 있다. 그 헌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느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도 국민이 신앙을 갖든지 혹은 신앙을 갖지 않든지 간에 강요할 수가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종교를 이용해서 반혁명활동을 진행하면 안 된다. 혹은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국가교육제도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종교는 외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들의 정책을 분석해 본다면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했으나 반대로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목회활동, 선교, 전도, 복음찬송을 자신도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음을 뜻한다.

그 누구든지 종교를 이용하여 반혁명 활동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기독교가 조급도 선교활동을 할 수 없음을 뜻한다. 기독교의 교리의 중심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들었고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에 보내어 영생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론은 천지 만물은 자연의 조화에 의하여 이룩되는 것이고 인간들이 미개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신이 있다고 우상숭배 놀음을 벌인 것으로 내세는 없다고 한다.

그들은 종교는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손쉽게 통치하기 위하여 만든 마약이라고 단정하고 점차 종교를 소멸해 버리는 것이 공산당의 의무라고 한다. 그러므로 종교를 무서운 반혁명 세력으로, 협잡집단으로, 간첩집단으로 단정한 조건에서 그들은 그들이 제정한 법으로 순수한 신앙도 탄압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중공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

다음으로 종교는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여기서도 그들의 사회질서란 공산혁명의 이익에 맞게 만든 질서인데 그에 대치되는 종교활동을 하게 될 때 파괴죄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 모든 종교는 활동할 수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들

은 의학에서 과학적 치료방법만을 신임한다. 안수기도나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치료됨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선전한다. 그러니 종교 활동이 사실상 곤란한 법질서이다.

또 종교는 외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외국의 모든 종교를 중국에 수입 수출할 수 없음을 뜻한다. 동시에 문서, 돈, 선교사들의 유입을 불허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위반되는 경우는 중공 당국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삼자운동이란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을 말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1980-1990) 중국은 나라의 치안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종교인들을 비롯하여 반혁명 세력에 무차별 공세를 가했다. 대표적으로 천안문 사건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중공은 1991년부터는 서서히 종교를 자유화하고 있다.

3. 앞으로의 중국선교 전략

중국을 선교하려면 기다리면서 선교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한 전략의 하나이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좋은 기독교 교리를 속히 접합하는 것이다.**

중국을 예로부터 귀신론, 악령론, 도사론, 유교론, 불교론, 천도교론, 천주교론에 깊이 젖어 있는 나라이며 주민들은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또 중국인들은 진화론에 매혹되어 인류가 174만 년 전에 북경의 주구점과 황하 유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식하고 창조론을 유태인 우상물로 배격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으로서 모든 것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전파됐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볼 때 중국인들이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창조론에 대한 올바른 해설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기적을 알기 쉽게 알려 줄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하는 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종교적인 선교를 앞세우기 보다는 일반 자연과학에서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계몽운동부터 벌여 나

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준비없이 중국에 대한 선교를 진행한 나라들은 모두 실패하였다. 실례로 100년전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폴란드, 포르투갈 등이 중국에 선교활동을 했으나 모두 실패하여 지금 중국에서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2) 건설할 인재들을 많이 길러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인재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될 수 있는 젊고 건강하며 영적 지식을 갖춘 패기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북방선교의 길이 열리고 그것의 합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수많은 선교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 때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중국에 선교사를 만 명을 파견하겠다고 하면 중국에서도 만 명의 공산당원을 우리 나라에 보내오게 될 수가 있다. 이것은 곧 선전대 교환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때에 우리가 준비된 인재가 없으면 곤란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신학교와 대학들이 새롭게 정비되어 시설을 완비하며 교수들을 잘 채용, 그들의 능력을 국제 수준으로 높이고 강의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높은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 전문 선교사 양성기관을 만들고 경험있는 교수들을 대거 배치하여 선교사를 길러내며 그들로 하여금 각국에서 훈련을 받게하여 선교 방법과 지혜를 배우게 하여야 한다.

종교 단체들이 국가 공권력과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국가와 정부의 도움도 받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3) 중국 선교를 위한 초교파적인 상설지도 기관을 설립하여 동시에 연구기관을 세워야 한다.

중국을 선교하려면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인 종교단체들의 초교파적인 힘이 필요하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당과 모든 사회단체들이 단합하여 종교를 반대하고 방어하는데 우리는 분산적으로 선교하기 때문에 선교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뜻 있는 분들이 현재

조직한 중국선교단, 문서선교단, 전파선교단, 경제선교단, 비밀선교단, 선박선교단, 항공선교단, 여행선교단, 연예인선교단, 교수선교단, 무역선교단, 친척방문선교단 등등 수없이 많은 선교단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도기관을 만들고 재정적 관리는 물론 사람들도 잘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선교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소를 세워 중국의 역사와 문화, 오늘의 중국 정치, 문화, 경제, 군사, 행정, 종교를 상세히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소에서는 선교의 여러 가지 방법을 탐구할 수 있으며 중국에 현존하는 교회, 지하교회들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선교하는 방법들을 연구할 수 있다.

(4) 선교를 위한 자금을 많이 축적해야 한다.

한국의 각 교회들은 북방선교의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비축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는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교회 확장, 기도원 짓는 비용 등으로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교회와 신자들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다.

(5) 중국 선교를 위한 지역적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합작투자의 방법으로 농·목장, 공장, 대학, 병원, 학원, 음식점, 무역출장소 등을 통하여 앞으로 합법, 비합법적으로 선교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교환교수, 유학생, 문화교류단, 교환연예인들이 중국에 들어가 있으면서 어떤 교회와 연계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지하교인들과 연계하여 그들을 도와주며 선교의 비밀 거점을 만들 수도 있다.

중국 정부와 우리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통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중국교회들과 연계하여 그들을 돕는 방법으로 거점을 만들 수 있다.

그리하여 작은 점들이 모여 공간을 매우듯이 거점이 서로 연결하여 전국을 복음화하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

중국과 서양의 우수한 품성을 겸비한 성공회의 명망있는 목사

顏 永 京 (1838~1898)

福建省 아모이 市



안영경(1838~1898)목사는 성공회 초기의 이름 있는 목사로 일찍이 미국에 유학한 후 공직에 있다가 나중에 교회 사역에 헌신하였다. 武漢과 上海 두 도시의 교회와 학교에서 봉사하였는데 모두 탁월한 기여를 하였다. 그는 부모에게 효성스러웠으며 자녀교육을 잘 시켰고 형제자매와 우애하였고 사람을 대함에 신의가 있었으며 직무에 충실하였다. 그는 당시에 중국과 서양의 우수한 문화를 잘 받아들인 걸출한 인물 중의 하나였다.

안목사의 이름은 永京이고 자는 擁經이며 복건성 아모이 사람이다. 원적은 산둥으로 유교의 둘째가는 성인으로 여겨지는 顏子(淵)의 후예로 전해지는데 언제 복건으로 이주해 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영경의 부친에 이르러서는 그가 상해에서 상업에 종사한 까닭에 온 집안이 복건에서 상해로 옮겨오게 되었다. 영경은 상해에서 태어났는데 이 때는 1838년으로 바로 아편전쟁 발발 두 해 전이었다.

1842년에 아편전쟁이 끝나자 전쟁에 패한 청나라 조정은 남경조약에 조인하게 되었고, 상해 등 다섯 지역을 통상항구로 개방하고 상업부두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것은 선교사가 이들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

하기도 하였다. 미국성공회의 윌리엄 분(文惠廉: Bishop William Boon)주교는 1844년에 상해에 왔는데 온 지 얼마 안 되어 王家부두에 한 교회학교를 건립하여 중국학생들에게 무료로 서구식교육을 베풀었다.

안영경은 본래 서당에서 공부하였으나 집안사정이 여의치 않던 중 무료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게다가 학교가 집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영경의 부친은 그를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기로 하였다. 이 때는 영경이 갓 10세(1848)가 되던 때였다.

영경은 동급생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으나 성적은 매우 뛰어나서 중국어나 영어실력이 모두 우수하였다. 윌리엄 분 주교와 포인츠(Points)선생의 눈에 들게 되었고 재목감으로 여겨졌다.

1854년 영경이 16세때 포인츠선생은 그와 그의 동급생 楊錫麟의 지속적인 수학을 위하여 이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먼저 미국의 중학에 들어가서 공부하였고 나중에는 오하이오주의 캄비에르의 케년대학(Kenyon College, Combier, Ohio)에서 공부하였다. 1861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된 그는 졸업생을 대표하여 답사를 하였으며, 재학중에는

중국인으로서의 최초로 전미국 고급인재명예학회인 Phi-Beta-Kappa에 가입하는 영예를 누리기도 하였다.

1862년에 미국에서 상해로 돌아온 그는 선교사의 일을 맡을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에서는 이미 남북전쟁이 발발하여 중국교회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국내에도 태평천국군과 청나라 조정간의 전쟁이 양쯔강 하류에서 진행 중이어서 교회사역을 전개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부모를 부양하고 유학으로 인하여 진 빛을 갠아야 했기 때문에 영경은 잠시 처음 생각을 바꾸어서 상해의 영국영사관에서 통역관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밖에 동문서국(同文書局)에도 가입하여 일을 했으며, 잠시 후에는 上海 組界의 공부국(工部局)에서 통역관직을 역임했다. 영경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외에 다른 데 맡겨두었던 누이동생도 찾아왔으며 동생 潤隆의 미국유학도 도와 주었다. 이런 것들은 그의 효성과 우애의 아름다운 행위를 나타내는 것들이었다.

영경은 공직근무에 있어서도 그의 비범함을 드러내었다. 당시 상해는 개방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중국인 가운데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직 많지 않았다. 중국과 서양이 교섭하려면 통역원을 통해야만 했는데 통역원의 수준이 높지 않았고 게다가 질이 좋지 않아서 스스로 외국인의 주구가 되어 외국사람에게 아첨하였으므로 항상 업신여김을 받았으나 영경만은 예외였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독교의 진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공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뇌물을 받지 않았으며 중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에 온갖 힘을 기울여 많은 사람들로 부터 칭송을 받았다.

영경은 비록 공직에 있었으나 공무 중 여가만 생기면 열심으로 교회사역에 참여하였으며 외국

주교에게 신학을 배우고 적극적으로 虹口 救主堂 (Church of Our Savior)의 사역을 담당하였다.

1870년 말에는 마침내 공직생활을 청산하고 武昌에서 목사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武昌, 漢口 등지에서 12년간 전도사역에 종사하였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외에도 적극적으로 옥영사업을 벌였다. 그에게는 경영관리의 재능이 있어서 목사 초임시에 武昌 曇雲林에 땅을 사서 文華學堂(Bishop Boone School)을 세웠다. 이 학교는 나중에 文華書院, 文華大學으로 발전했으며 후에는 華中大學으로 개칭하여 양자강 중류의 명문교가 되었는데 그 첫 공로자는 다름아닌 안목사였던 것이다.

1878년 안목사는 상해로 돌아와서 사역하였다. 그는 쉬에레스체프스키주교를 도와서 학교를 세웠으며 상해 서부의 梵王渡에다 교지를 구매하여 성요한서원을 설립하였는데 준비기간동안 영경은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였고 이후 8년간 봉사하였다. 이 학교는 다시 발전하여 성요한대학이 되었는데 이 대학은 중국의 저명한 고급학부 중의 하나로 무수한 인재가 배출되었다. 이 대학의 공로자 역시 안목사였던 것이다.

1887년 안목사는 虹口의 성공회 救主堂의 목사가 되었고 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20년간 전심전력으로 교회의 발전에 힘을 쏟았다. 그는 회중에게 예수교의 정의를 해석해 줌에 있어 고금의 예를 들어서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교우들을 감동시켰다.

안목사는 성직으로 봉사한 외에 공익사업에도 열중하여 아편해독에 고통을 받고 있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고 전족한 부녀자들의 고통에 대해 연민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아편흡연금지운동과 전족금지운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1895년에는 중국금연(아편금지)총회에서 대표에 추대되어 영미 각지를 돌아다니며 중국의 아편해독에 대한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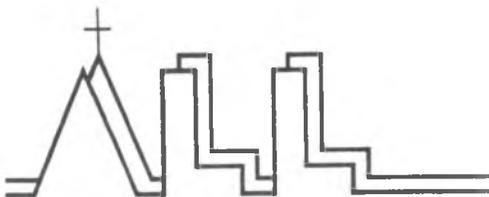
을 통하여 영국상인이 돈만 탐하는 것을 꾸짖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진리로 중국에 아편을 팔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 이처럼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애쓴 결과 마침내 아편생산과 수입이 점차로 감소되게 되었다. 그의 전족금지운동의 제창은 자신의 집에서부터 실천하여 외동딸 慶蓮에게 전족을 못하게 했는데 이러한 실천수범이 좋지 않는 풍습을 없애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안목사는 또 애국자였다. 그는 중국사람들의 상해 外灘공원출입을 금하는 외국인의 무리한 규정에 불만을 품고 누차 투서하고 항의하였으며 더 나아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의 공원을 만듦으로써 이에 저항하였다.

그는 구미를 여행하던 중 여독이 심하여 건강이 악화되었고 고혈압과 신장염으로 앓다가 1898년 6월 20일 자던 중에 향년 61세로 소천하였다.

장례일의 추도회에는 상해 교계와 상업계인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소탈하지만 비범했던 이 목사를 추모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성요한대학 총장 卜筋濟박사는 그를 칭송하여 "그는 자신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였으며 성실하고 공정하며 용감하고 대의를 위해 소아를 희생할 줄 아는 위인이었다."라고 말하였다. 이 학교의 큰 건물의 하나인 「思顏堂」은 그를 기념하여 명명된 것이었다.

【출전: 中國基督教人物小傳 上卷】



☒선교 도서 안내☒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3,000원
(전문인협력기구)
2. 중국선교 -- 교회의 대장정 3,500원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교재 안내☒

1. 中國語 聖經 5,000원
(신약+ 시편+ 잠언:주음부호)
2. 使徒信經, 主禱文 外 1,500원
3. 經文背誦 1,500원
4. 睡夢鄉(兩塊錢, 好心人) 1,500원
5. 睡夢鄉(小二回家) 500원
6. 飛行屋(離家出走) 1,500원
7. 飛行屋(好隣居) 500원
8. 初級中國語 I 2,000원
9. 初級中國語 II 2,100원
10. 中國文化二十講 5,000원
11. 예수 讚美(중국어 찬양집) 3,000원

☒Tape 안내☒

1. 使徒信經, 主禱文 外 1,000원
2. 經文背誦 1,000원
3. 中國文化二十講(3개) 1,500원
4. 睡夢鄉(兩塊錢, 好心人) 1,000원
5. 睡夢鄉(小二回家) 1,000원
6. 初級中國語 I (10개) 6,000원
7. 初級中國語 II (10개) 6,000원

* 구입 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하거나 지방에
계신 분은 우편으로 신청해
주세요. (TEL. 594 - 8038)

중국 기독교 토착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Ⅱ)

- 중국교회 역사발전의 관점에서 검토함 -

林治平

(연구부 제공)

Ⅲ. 기독교의 중국 토착화 노력 및 그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들

기독교의 중국 토착화 역사는, 당나라 경교에서부터 계산하면, 대략 6세기에서부터 현재까지 1300여 년이 된다. 당나라 경교는 중국에 전래된 이후 토착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당시는 중국문화의 전성기인 당나라시대였기 때문에 경교는 토착화에 전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압력에 의하여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논자들은 실패의 원인이 지나치게 토착화를 중시한 나머지 심지어는 불교화가 되어버려 마땅히 갖추어야 할 원래의 색채를 잃어버린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나라시대의 경교는 비록 한 때 「法流十道, 寺滿百城(경교가 널리 퍼졌으며 사원이 곳곳에 있다.)」화 할 정도로 중국에서 성행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당 무종이 불교를 금지하게 되자 곧 함께 금교를 당하여 연기처럼 사그라들었으며 중앙아시아 일대로 물러나서 겨우 그 명맥만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 후 원나라시대가 되자 몽고인을 따라 다시 중국에 전래되었으나 겨우 몽고인의 범위에 한정될 뿐이었다. 당시 천주교의 선교사 몬테 코르비노 등도 천주교를 전했으나 경교와 천주교 모두 그 영향력은 보잘것없었으며 중국인이나 중국문화 속에서 전혀 뿌리를 내려 발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몽고인이 물러가게 되자 잠시 중단되었다.

명나라시대인 17세기가 되자 예수회 신부 마테오리치 등이 중국에 들어오게 되어 천주교는 마침내 중국 전입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 마테오리치는 선교사역의 새로운 국면을 만든 매우 위대한 선교사이다. 토착화의 각도에서 보면 마테오리치는 토착화선교를 이용한 성공적인 실례로 평가된다. 즉 마테오리치와 같은 초기의 예수회 선교사들은 한편으로는 중국 전통풍속을 익히려고 노력을 다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많은 경서를 익혀서 중국사회의 徐光啓나 李之藻 등 知英派의 관료계급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였던 것이다. 나중에 교회문제와 관련된 논쟁이 발생될 때 서광계 등은 용감하게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 변호하였다. 그들은 모두 고급지식인들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웅변을 잘하며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들의 글을 읽으면 그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 당시에 출판된 「天主實義」와 같은 것들은 다 토착화과정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마테오리치 등이 토착화의 기초를 세우고 토착화를 통해서 중국에 복음을 전한 극히 성공적인 실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마테오리치 등의 노력은 일단 중국사회의 근본가치—가장 두드러진 것은 제사와 공자숭앙 등의 儀禮—와 부딪히게 되자 처참한 좌절을 면하지 못하여 그 후 토착화의 과정에서 수백 년간을 걸쳐 그치지 않는 논쟁과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남기게 되었다.

19세기 초에 개신교의 첫 선교사인 모리슨이

중국에서 기독교를 전파하였다. 전체 인류역사에서 보면 19세기는 서양문화가 고조에 달하던 시기로 이 때는 바로 서양 문예부흥 이후로 이성주의, 공업혁명 및 최신의 정치개혁이 모두 완성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서양선교사는 당시 문화, 정치, 군사의 우수한 힘을 업고 중국에 들어왔다. 의도했건 안했건 간에 고자세로 중국에 들어온 그들은 중국문화에 대한 인식도 종전의 선교사들에 훨씬 못 미쳤다. 19세기 이전의 서양인들은 원나라 때의 마르코폴로나 명나라 때의 천주교신부들처럼 중국문화에 대해 매우 탄복했다. 그러나 19세기는 서양문화가 고조됨에 따라 서양인이 자신의 문화에 대해 자신감이 매우 강하던 시기였다. 서양인이 서양의 틀을 가지고 중국의 사회문화를 보았기 때문에 중국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오히려 오해하고 비천시하여 중국이 낙후되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우며 가난하고 누추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도 중국선교에 있어서 중국문화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대다수의 선교사는 자신들의 신앙이념을 자신의 표현방법으로 주관적이고도 강렬하게 표현하였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과 좋다고 여기는 것을 일종의 구세주의 태도로 중국인에게 강요함으로써 가련한 중국인을 구원하려고 애썼다. 그들 가운데는 중국의 문화와 사회가 사악한 이교와 사탄의 총망라라고 보는 이들도 있었다.

이와같이 양자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게 되자 굴욕을 느낀 중국인들은 연거푸 좌절을 당하고 난 뒤에는 곧 전력을 기울여 기독교에 저항했다. 이들은 기독교가 단지 서양종교일 뿐이며 장차 중국에 크게 불이익을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당시의 정치상황은 서양인이 불평등 조약속에 종교 전파조항을 삽입하도록 중국인을 무력으로 강압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860년 이후 서양인이 중국선교활동의 눈부신 발전을 기뻐하고 있을 때 반기독교운동이 보편적으로 전개되었다. 잇따른 教案(종교박해사건:역주)은 중국과

서양간 충돌의 복잡성을 가중시켰다. 이 잇따른 教案 중에서도 의화단이 일으킨 庚子教案은 가히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학의 차원에서 검토하면 의화단교안도 중국문화사회가 외래의 강한 압력에 일종의 무속적이고 배외적인 본토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자교안때 의화단은 扶清滅洋(청나라를 돕고 서양을 물리친다)이란 구호를 앞세워 수많은 전도인과 교인을 죽였다. 교회는 이러한 고통을 통해야야 비로소 실패를 반성하게 되었으며 선교사와 교인이 무엇 때문에 중국 밖으로 배척당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는 중국토착화의 중요성을 통렬하게 느끼면서 그 방면의 노력을 시도 하였다.

1920, 1930년대에는 민족주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5·4운동 이후부터 1922년 사이에는 지식인들간에 반기독교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기독교의 중국토착화의 의의 및 그 중요성에 대한 반성과 검토의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독교의 중국토착화에 대한 호소가 분분히 일어났으며 각종 시도적인 노력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1925년 전후에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당시에 토착화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또 하나의 극단인 중국문화에만 집착하여 심지어는 불교화된 기독교를 주장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주류를 이루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이단종파로 배척을 당하였다. 그후 토착주의자들은 自立·自養·自傳을 주장하였고, 이는 결국 중공의 통일전선정책에 이용당하여 삼자애국운동위원회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중국토착화의 길은 곤란과 몸부림 속으로 빠져 들어갔으며 지금까지도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여섯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1. 성경번역 문제

성경을 어떻게 중국어로 번역할 것인가는 기독교

교의 중국토착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노력은 당나라 경교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경교가 취한 방법은 중국의 문화 가운데 현존하는 불교용어를 포함하는 어휘들은 대량으로 빌어 번역하는 것이었다. 불교화된 경교경전으로는 기독교가 전하려고 하는 진의를 정확히 전달할 수가 없었다. 중국인이 읽는 것은 경교가 차용해온 불교의 용어로 표현된 의미이지 기독교의 진정한 이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으로 불교화된 경교는 기독교의 진정한 함의를 이해할 수 없게 한다. 경교는 표면적으로는 「法流十道, 寺滿百城(경교가 널리 퍼졌으며 사원이 곳곳에 있다)」할 정도로 성하였지만 완전히 뿌리 내리고 성장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경교번역의 토착화가 단지 전달표현의 토착화에 그쳐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천주교가 중국에 전파된 뒤에는 천주교 선교사에 의해 성경번역이 시도되었으나 성경 전체를 모두 번역해내지는 못하였다. 1807년 기독교의 첫 선교사인 모리슨(Robert Morrison)은 중국에 들어온 뒤에 곧 성경번역에 착수하였다. 모리슨이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함과 동시에 또 다른 선교사인 마쉬만(Joshua Marshman)도 인도에서 동시에 성경번역을 시작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어떤 문체, 즉 통속적인 백화체를 사용할 것인가 전야한 고문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또한 God, Holy Spirit, Ghost 등의 명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토착화문체를 고려했기 때문에 청나라 시기에는 여러 판본의 번역성경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나온 「**습和本**」 성경은 가장 잘된 것으로 보급의 범위가 가장 넓은 판본 중의 하나이다. 「**습和本**」성경은 대체로 북방계들의 언어인 북경어에 치우치긴 했지만 전국적인 국어화, 백화문운동에 따른 것이었다. 사실상 「**습和本**」성경은 중국의 백화문운동이 보편화된 시기보다 먼저 나온 것이어서 중국의 각

교회에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의견충돌이 있었다. 정확한 번역사역은 의미 전달방법의 전환과 관련이 있다. A라는 문자체계 안에서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B라는 문자체제로써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B문자체계에 속해 있는 B문자체계의 의미를 가지고 A문자체계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어떻게 피하느냐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래서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 중국 유불도에 정통한 학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해 왔었다. 지금까지도 판본에 따라서는 각기 「受浸(침례를 받는다)」와 「受洗(세례를 받는다)」, 또는 「上帝」와 「神」 중에 어느 것을 고집함으로써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정확하게 "GOD"의 개념을 중국인에게 전해 주려면 반드시 중국문화 속에서 가장 적절하고 분명하게 이 이념에 들어맞는 단어를 찾아내야 한다. 이를테면 중국사상이라는 맥락 속에서 「上帝」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든지 또 중국사상이란 맥락에서 「天」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단어의 의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GOD"의 사상과 완전히 부합되는가?

문자나 언어는 항상 변화하고 있어서 새로운 번역은 끊이지 않고 나온다. 성경을 생생하고 평이하며 분명한 방식으로 중국인에게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성경번역에 있어서 끊임없는 주제가 되어왔다. 어떠한 번역본이 원의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독자적으로 번역할 것인가? 단지 「의미가 서로 부합되면 효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이 의미의 번역이고 자의(문자 자체의 의미)의 번역이 아니라면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바로 연관화와 토착화의 문제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글자의 의미가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의미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가 될 것이며, 심한 경우에는 잘못 전해지기까지 하여 틀림없이 많은 어려

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새로운 번역본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현대의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있으며,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 내기 위해 이것은 토착화나 연관화 노력의 하나이기도 하다.

성경번역에 있어서 토착화의 관건은 바로 현재의 문화 속에서 성경사상과의 접촉점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성경번역의 토착화는 기독교를 현재의 요구에 맞도록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대 문화사회구조의 맥락 속에서 기독교를 성공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 성경속에 들어 있는 관념이나 메세지가 문화 및 사회적 측면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성경판본은 필연적으로 다문화 쪽으로 발전하여 다른 사회계층이나 문화적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또 다른 번역본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사실상 종래의 성경번역은 바로 토착화나 연관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문화 및 사상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기독교의 중국토착화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중국어 번역본이 비단 기독교의 성경에 그치지 않고 중국사상가의 사상적 보고가 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영향력은 한 편으로는 그것이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광대한 군중(즉 중국의 작은 전통) 가운데로 깊게 파고들 수 있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문화와 사회 속에 있는 생각이 깊은 소수의 사람(즉 중국의 큰 전통)들을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이 이 두 가지 전통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때, 기독교의 중국토착화 비전은 비로소 서광을 발할 수 있다.

2. 문서출판 문제

문서출판은 토착화에 영향을 준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 토착화의 문제를 논

함에 있어 문서출판 사역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교회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서 기독교 문서사역에 종사했던 선배나 선구자는 거의 모두 서양 선교사였으나 서양 선교사와 함께 협력했던 중국인은 수준이 별로 높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서양인의 고용인이거나 수행원 출신이었다. 따라서 과거 중국교회의 출판물은 대부분 서양의 문서들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교회의 출판물이 여전히 번역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열심히 문서사역에 종사했으나 서양인의 느낌과 심리는 중국인과 달라서 그들이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것만을 중국에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중국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중국인의 진정한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고 중국의 사회문화의 아픈 곳을 찌르지 못하여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20세기 초엽에 이르러 좋은 교육을 받은 해외 유학생이 대량으로 중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이들이 펜을 잡고 끊임없이 글을 써냄으로 인하여 19세기말 기독교의 문서사역은 그나마도 빛을 잃고 말았다. 기독교문서사역의 토착화는 그 반응이 너무 느려서 5·4운동과 반기독교운동 등의 광풍이 휘몰아치던 시기를 지난 후에는 張亦鏡의 眞光雜誌 외에는 거의 성과가 없었다.

민국 이후의 현대문화에 대해서도 기독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기독교계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이런 현상은 60년대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廣學會(지금의 기독교문예출판사)가 그 사역을 기독교인의 손에 넘겨주었다.(초대 중국인 사장은 黃永熙박사였고 편집장은 許牧世목사였다.) 70년대 이후가 되자 중국교회의 문서사역은 비로소 중국인 사역자가 담당하게 되었다. 문서사역은 또 문화사역이기도 하다. 만약 문서사역을 중국의 문화가운데 정착시키려면 중국인이 이 일을 담당해야 한다. 중국인이야만 중국문화의 아픈 곳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중국문화에 뿌리내릴 수 없다. 문서사역의 토착화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교회의 각성과 더욱 많은 인재의 참여가 요구된다.

3. 선교방법 문제

선교방법도 기독교의 중국토착화에 있어서의 극히 중요한 열쇠 중의 하나이다. 중세나 고대에는 전유럽이 이미 천주교화 되었기 때문에 천주교는 완전히 토착화되어 유럽인들에게 수용되었다. 그래서 선교사는 권력의 힘을 높이 들거나 십자가만 높이 들면 곧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었고 선교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운동 이후 새로 일어난 예수회는 종교개혁운동의 충격을 받아서 다른 천주교파와는 사상이 현저하게 달라서 개방적이었으며, 해외선교를 특히 중시했기 때문에 타문화에 대한 관심이 기존 천주교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났다. 기존 천주교의 각 유파는 오랜 세월 동안 타문화를 접촉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타문화 인식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런 유파들은 십자가만 높이 들면 곧 상대방의 존경심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는데 이런 생각은 서양사회에서 이미 그 권위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회 신부들은 해외선교를 위해 타문화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대양을 건너 중국에 왔을 때 중국인은 본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므로 십자가를 높이 들어도 별로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국인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대해 탄복하고 존경하도록 하려면 반드시 중국인의 의미체계를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서 중국선교의 역사를 개척한 예수회의 초기의 선교사들은 현지의 문화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예수회 선교사는 대체로 토착화 문제를 중요시하여 중국에서의 천주교 토착화사역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예수회와 함께 중국에 들어온 다른 천주교 선교사들은 이와 달랐다. 이를테면 프란치

스코회나 도미니코회 등은 유럽에서의 장기간 선교 경험에 따라 예수회의 토착화 선교방법에 대해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예수회는 새로운 교파였기 때문에 반드시 전통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동방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근본부터 시작할 수가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회는 비교적 토착화를 중시하였고 조상이나 하늘에 대한 제사와 공자숭배 등의 각종 사회문화를 존중하였다. 그러나 타교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마침내 의례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었고 급기야는 황제가 금교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중국선교에 열과 성을 다했던 예수회마저도 교황의 해산령으로 해체되고 말았으니 이로써 토착화의 노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19세기 초에 이르러 다시 한번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왔는데 이 때는 서양의 문화가 최고조에 달하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월감을 지닌 채 중국에 들어왔다. 그들은 중국의 사회형편이나 문화상황에 대해 그다지 경의를 가질 수 없었다. 많은 선교사들은 중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하여 멸시하기까지 하였다.

청나라 중엽 이후 중국에서의 선교방법을 보면 대략 두 파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티모시 리차드 등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문화와 결합하고 중국사회의 습속을 이해하자고 주장하는 부류였고, 다른 하나는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하여 직접적인 방법으로 선교하고 조금도 변통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부류였다. 전자는 「공자에 기독교를 더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전통문화와의 융합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후자는 「공자이든지 예수이든지」라고 하여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했다. 전자에 따르면 중국인으로 하여금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중국인의 「세속적인 두뇌」와 사상을 바꾸는 데서부터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인이 사고하는 것과 기독교의 전제가 충돌되고 위배된다면 신앙은 결코 전달될 수 없을 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그들의 두뇌가 준비되어야만 비로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선교방법은 오늘날의 「福音豫工(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비적인 사역)」과 같은 것으로 토착화와 연관성을 비교적 중시하는 선교방법이다.

후자는 복음과 사회 양자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한다. 복음을 전할 가능성만 있다면 중국인의 문화와 사회를 관여할 필요가 없으며 복음의 새 소식과 내용만을 직접적으로 전하면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토착화나 연관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 부류의 선교사들은 주관적으로 복음의 모든 내용을 전했다고 생각하면 그만으로 상대방이 깨달았는가, 받아들였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개의치 않았다.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상호보완해야 할 두 종류의 선교방법이 역사의 진전과정에서 하나는 실패로 하나는 복음진리파로 나누어져서 대립하였으며 결코 서로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이들의 주장은 각기 나름의 논리를 가진 것이나 중국문화와 더욱 많은 관련을 주장하거나 토착화 논리에 기울어진 선교방법은 중국의 정통 복음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양자가 극단으로 치달아 피차간에 공격을 일삼게 된 것이다. 결국 티모시 리차드파는 갈수록 사회복음 쪽으로 기울어서 그 중의 일부는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심만을 따졌다. 허드슨 테일러파는 순전히 복음화의 길만 걷다가 결과는 완전히 사회와 연관성을 잃어 버렸고, 자신을 교회의 침탑 가운데 가두어버림으로써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다. 중국에서 행한 기독교의 모든 전도 과정에서 이 두 파의 선교사는 이론과 실제면에서 서로 도울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복음 전파의 측면에서 볼 때 어쨌든 간에 상당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상술한 현상이 다소 개선되어 교회도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고, 교회와 협력하는 복음기관



(Para-Church Organization), 예를 들면 홍콩의 突破나 대만의 宇宙光, 校園, 工業福音, 基層福音 및 客家傳道使役 등이 토착화와 연관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1974년 복음파에 속하는 각 교회들은 스위스의 로잔에서 제1차 세계복음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선언문은 사회에 대한 교회의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사실 예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환경이나 배경을 중요시 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더욱 그러하였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과 같이 된 것은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든지 "여러가지 지혜를 사용하여 각종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여 상대방의 방법으로 우리의 의미를 전달하라는 것이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선교방법을 다시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중국어로 찬양을!

祢是榮耀君王

You Are The King Of Glory

Mavis Ford

詩 24:10
約 12:13

♩=80 * F(G) C7/E(D7) F(G) B^b(C) C7(D7)

5 5 6 5 5 | 5 1 1 - - | 6 6 6 1 6 1 | 7 - - - |

祢是榮耀的君王， 祢是和平之主，

A7(B7) Dm(Em) B^b(C) C7(D7)

7 7 7 2 . 7 | 1 1 2 1 - | 1 1 1 3 2 1 2 | 2 - - - |

祢是天地萬有主宰， 惟有祢聖潔公義；

A7(B7) Dm(Em) B^b(C) C7(D7)

3 3 4 3 . 2 | 2 1 1 - 0 1 | 4 3 2 1 | 7 - 6 7 |

天使都向祢跪下， 敬拜尊崇祢；因為

F(G) B^b(C) C7(D7) Dm(Em) B^b(C) C7(D7) F(G)

5 5 5 6 . 6 | 7 2 1 - | 3 1 1 6 1 7 1 | 1 - - 1 5 |

在祢有永生之道， 祢是主耶穌基督。 和

Dm(Em) B^b(C) C7(D7)

5 4 3 2 4 3 2 | 2 1 1 - 1 3 | 4 4 4 4 6 4 3 | 2 - - - |

散那歸於大衛的子孫！ 和 散那歸於萬王之王！

F(G) C7/E(D7) F(G) Dm(Em) B^b(C) C7(D7) F(G)

5 5 5 5 5 5 | 5 3 2 1 2 | 3 1 1 6 1 7 1 | 1 - - - ||

頌榮耀歸於——至高神， 耶穌是彌賽亞！

우리말 가사:

당신은 영광의-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님의 승천

(사도행전 1장 3절 ~ 11절)

(방송대 성경반 제공: 서울지역)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후에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자신을 사도들에게 생생하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40일동안이나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모여있을 때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너희들이 나에게 들었던 것을 기다려야 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며칠이 못 되어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것이 바로 이 때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신 때와 날은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 몸에 임하시면 반드시 능력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고 있는 중에 곧 들리워 올라가시니, 한 조각의 구름이 예수님을 맞이하여, 곧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예수님이 위로 올리워가셔서 그들이 시선을 집중시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서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은 왜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들을 떠나 승천하신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늘 위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또한 그렇게 오실 것이다.”

□ 단어 해설 □

受害	shòu hài	피해를 당하다. 손해를 입다.
活活地	huóhuóde	① 산 채로. 멀쩡하게 ② 꼭. 완전히
顯現	xiǎnxiàn	현현하다. 나타나다. 드러나다.
講說	jiǎngshuō	강의하다. 설명하다.
聚集	jùjí	모이다. 모이다.
囑咐	zhǔfù	분부하다. 알아듣게 말하다.
離開	líkāi	벗어나다. 떠나다.
應許	yīngxǔ	① 승낙하다. 응낙하다 ② 허락하다.
施洗	shīxǐ	세례를 베풀다
權柄	quánbǐng	권력
見證	jiànzhèng	현장증인 증거물품
得着	dézháo	얻어 내다. 손에 넣다.
取	qǔ	① 얻다. 손에 넣다. 부르다. ② 소환하다.
雲彩	yúncǎi	구름
定目青	dìngmùjīng	시선을 집중시키다.
升天	shēngtiān	승천하다. 하늘에 오르다.
樓房	lóufáng	층집, 다락

(原文)

SHĪTÚ XÍNG ZHUÀN 使徒 行 传

第一章

Tā shòuhài
他 受害

zhī hòu yòng xǔduōde píngjù jiāng zìjǐ huóhuóde xiǎngěi shǐtú kàn sīshí
之后，用 许多的 凭据 将 自己 活活地 显给 使徒 看，四十
tiān zhī jiǔ xiàng tāmen xiǎnxiàn jiǎngshuō Shén guó de shì Yēsū hé
天 之 久 向 他们 显现， 讲说 神 国 的 事。‘耶稣 和
tāmen jùjí de shíhou zhǔfù tāmen shuō Búyào líkai Yelùsāilēng yào
他们 聚集 的 时候， 嘱咐 他们 说：“不要 离开 耶路撒冷， 要
dènghòu fù suǒ yīngxǔ de jiùshì nimen tīngjian wǒ shuōguo de Yuēhàn
等候 父 所 应许 的， 就是 你们 听见 我 说过 的。’⁵约翰
shì yòng shuǐ shìxǐ dàn bù duō jǐrì nimen yào shòu shènglíngde xǐ
是 用 水 施洗， 但 不 多 几 日， 你们 要 受 圣 灵 的 洗。”

Tāmen jùjí de shíhou wèn Yēsū shuō Zhǔ a nǐ fùxīng Yisèliè
他们 聚集 的 时候， 问 耶稣 说：“主 啊， 你 复兴 以色列
guó jiù zài zhè shíhou ma Yēsū duì tāmen shuō Fù píngzhe zìjǐde
国， 就 在 这 时候 吗？”⁷耶稣 对 他们 说：“父 凭 着 自己 的
quánbǐng suǒ dìng de shíhou rìqī bú shì nimen kěyǐ zhīdao de Dàn
权柄 所 定 的 时候、 日期， 不 是 你们 可以 知道 的。⁸但
shènglíng jiànglínzài nimen shēnshàng nimen jiù bì dézhāo nénglì bìng
圣 灵 降 临 在 你们 身上， 你们 就 必 得 着 能力， 并
yào zài Yelùsāilēng Youtài quándì hé Sāmǎliyà zhídào dìjī zuǒ wǒde
要 在 耶路撒冷、 犹太 全地 和 撒玛利亚， 直到 地极， 做 我的
jiànzhèng Shuōle zhè huà tāmen zhèng kàn de shíhou tā jiù bèi qǔ
见证。”⁹说了 这 话， 他们 正 看 的 时候， 他 就 被 取
shàngshēng yǒu yìduǒ yúncǎi bǎ tā jiēqu biàn kàn bujiàn tā le Dāng tā
上升， 有 一 朵 云彩 把 他 接 去， 便 看 不 见 他 了。¹⁰当 他
wǎng shàng qù tāmen dìngjīng wǎng tiān de shíhou hūrán yǒu liǎngge
往 上 去， 他们 定睛 望 天 的 时候， 忽然 有 两个
rén shēn chuān bái yī zhānzài pángbiān shuō Jiāllì rén na nimen
人， 身 穿 白 衣， 站 在 旁 边， 说：¹¹“加利利 人 哪， 你们
wèi shénme zhānzhe wǎng tiān ne Zhè líkai nimen bèi jiē shēngtiān de
为 什 么 站 着 望 天 呢？ 这 离开 你们 被 接 升 天 的
Yēsū nimen jiàn tā zěnyàng wǎng tiānshàng qù tā hái yào zěnyàng lái
耶稣， 你们 见 他 怎样 往 天 上 去， 他 还 要 怎样 来。”

중국의 원시종교와 원시문화

(번역부 제공)

「종교와 중국전통문화」를 연재하며

「종교와 중국전통문화」책자는 번역부 모임에서 공부하는 교재이다. 각자 번역하고 함께 윤문한 내용을 초록하여 앞으로 회지에 실을 예정이다. 책의 내용은 제1장 중국원시종교와 원시문화, 제2장은 도교, 제3장은 불교, 제4장은 이슬람교, 제5장은 기독교, 제6장은 소수민족의 종교 등 중국 전통문화 내에서의 지위와 작용에 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중국문화의 포괄성을 이해하고, 특히 이 가운데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가 하는 문제와 앞으로의 위상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번역부 변

제1장 중국원시종교의 특징

세계의 여타 민족과 마찬가지로 중국 각 민족의 원시종교 역시 자연숭배와 토렘숭배, 조상숭배의 단계를 거쳐 왔다. 물론 각 단계 사이에는 서로 연관, 융합되어 있어서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그 내용도 각 민족의 구체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차이가 있다.

중국의 원시종교는 그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풍부하고 지속된 시간도 매우 길다. 중공수립 이전까지의 중국 동북과 서남의 소수 민족들의 지역은 여전히 원시 씨족사회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런 지역의 어떤 소수민족의 종교 신앙

이야말로 생생한 원시종교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역사적, 현실적 상황에서 볼 때 중국원시종교는 다음과 같은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용, 기린, 봉황이라는 특이한 허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고대에서는 용, 기린, 봉황, 거북 등의 네 가지 영물을 받들어 섬겼는데 거북을 제외한 세 가지 영물은 상상의 산물이다. 용, 기린, 봉황에 대한 인간의 숭배는 원시자연숭배의 범주에 완전히 속하지 않고, 흔히 정치적 혹은 도덕적 성질을 지니기도 하나 이런 류의 숭배는 확실히 원시종교의 반영인 것이다. 여기에서 고대인들은 용이 비와 물을 관장하는 동물신으로 사람에게 상서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역대 제왕이나 위인은 모두 용의 화신으로 여겼다. 용이 비록 상상적인 동물이지만 고대인들은 그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 믿었다. 「左傳, 昭公二十年」에는 고대에 환룡씨가 있었고 어룡씨는 용을 전문적으로 길렀으며 夏의 임금인 용의 고기를 먹었다는 전설 기록이 있다. 중국의 용에 관한 기록이 최초에 나타난 것이 어느 때인가는 정확히 고증하기가 어려우나 갑골문이나 금문에는 이미 龍字가 나타나 있다. 용의 형상도 시기마다 달리 묘사되고 있다. 중국 신석기 시대의 문화유적 중에는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을 가진 도자기 뚜껑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이 최초로 상상한 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고대 도기와 청동기 중의 용은 다리가 있는 뱀 같아서 악어와 아주 흡사하다. 그러나 악어와 뱀은 육지에서 생활하여 하늘에 오를 수 없지만 漢代 王充이 지은

「論衡·龍虛篇」의 용에 대한 각종 묘사를 보면 “구름을 타고 하늘의 사자가 된다” “연못 가운데 살며 물고기와 자라의 종류라고 하고”, “鱗蟲의 우두머리”, “말과 뱀류에 속하여 말머리에 뱀의 꼬리를 지녔다” 등등으로 서술되었다.

기린은 모양이 사슴 혹은 외뿔의 노루와 같고 온 몸에 비늘이 있으며 꼬리는 소와 같으며 단지 땅 위에서만 활동하며 상서로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기린은 신의가 도타운 짐승으로 제왕에게 따르는 상서로운 짐승이라고 한다.

봉새는 모든 새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출현하면 흔히 천하가 태평하고 오곡이 풍작을 이루며 유덕한 군자 및 덕행 높은 이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됨을 상징한다. 「淮南子·繆稱訓」에 널리 일컫기를 “옛날 요순임금 때에는 봉황이 정원에 이르렀고 하. 은. 주 三代에는 문에 이르렀고 周왕실에는 늪에 이르렀다. 덕이 거칠면 봉황이 멀리 이르고, 덕이 아름다우면 봉황이 가까이 이른다”고 하였다. 여기에서의 봉황은 곧 봉새이며 그 가까이 오는 정도로 덕정과 개인 덕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둘째로 중국원시종교는 하늘을 숭배하는 천신 사상은 없고 총체적인 자연신관도 가지고 있지 않다. 갑골문에는 하늘이 ‘쫘’로 되어 있다. 마치 사람의 머리 위에 일편의 망망한 공간이 덮여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說文解字」에서 ‘天’을 해석하기를 “꼭대기이다. 더 이상 위가 없는 가장 높은 곳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천에 관계된 해석은 단지 하늘의 높고 광대한 자연현상만을 설명할 뿐 신비스러운 점은 전혀 없다. 周代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天”으로 최고신을 삼았다. 그러나 이 최고신, 즉 “천”은 자연신이 아니라 각종 신령한 속성을 종합하여 창조해 낸 인격신으로 자연속성보다는 사회적 속성이 더 많은 신이었다. 중국 고대인들의 天體에 대한 숭배는 해, 달, 별, 구름 등등의 숭배였다. 하늘로 말하면 고대인들은 하늘을 해, 달, 별, 구름 등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보았고, 어떤 신비감 같은 것은 결코 없었다.

세번째로 징조와 미신이 성했다. 소위 징조와 미신은 사람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한 방편이었다. 징조와 미신의 출현은 원시 사회인들의 인식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이는 사물의 발전과정 前단계의 형상 인식을 주의하게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알게 해 주며 동시에 행동의 결과를 예측케 해 준다. 이것은 원시적 사고의 진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주관성과 능동성을 속박하여 초자연적인 힘에 맡기게 되는 것이다. 원시사회에서 징조로 받아들인 것에는 지상의 동식물의 변화현상과 천상의 기이한 현상 및 기후, 계절의 이상, 인체의 생리현상과 몽조, 몽점 등등이 있다.

네째로 조상숭배의 다원화이다. 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혈연관계를 중시했다. 신화에 의하면 중국민족의 조상숭배는 수렵신 伏羲, 하늘을 보수했다는 여와, 농업신 神農씨 및 황제, 염제 등이 있는데 이것은 중화민족이 옛부터 거주 지역이 광활하고 노동 생산방식이 복잡 다양하였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각 개의 부락이 중원의 夏族과 융합된 이후에는 이전의 각지 부락연맹의 우두머리를 그들의 선조로 인정하여 피차간에 친밀한 혈연관계를 나타내었다. 중국 역사상에 商왕조를 세운 殷족은 동방에 거주하였고 周왕조를 세운 周族은 서방에 거주하여서 그들에게는 본래 혈연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고문헌의 기록은 그들의 먼 조상이 제곡임을 말해주는데 이는 후인이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 엮어 낸 이야기일 것이지만 상고인들이 혈연관계를 아주 중요시하였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제2장 중국 원시종교의 원시문화에 대한 영향

인류학자 테일러(E. B. Tylor)는 문화는 “하나의 복합물”로서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풍속 및 기타 인류 사회의 구성원에 획득한 능력 및 습관을 포함한다고 했다. 테일러의 견해에 의하면 종교도 당연히 문화의 범주에 속한다. 우리는 문화가 종교를 포함하며 또한 문화

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친다고 여긴다. 특히 원시사회에서 인간이 창조한 문화는 모두 종교적 낙인이 찍혀 있다. 먼저 여러 종류의 신령숭배는 중국의 다원적 원시문화의 중요한 원인을 형성한다. 중국 고대신화와 전설 가운데 가장 폭넓게 유전되는 “여와가 오색돌을 녹여 하늘을 기웠다” “북희는 백성들에게 사냥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는데 「산해경」에서는 여와가 뱀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가진 “신인”이며 북희도 역시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을 가진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竹書紀年」에는 북희 계통에 속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용과 뱀을 토렘으로 하는 원시씨족의 표지였을 것이다. 북희씨는 이후로 중화민족의 공동조상이 되었다. 문화 유형으로는 그는 중국 서부지역의 용·뱀토템 문화의 대표가 되었다. 중국의 동부에서는 봉새가 많은 씨족 공동체의 토렘 내지 부족이었다. 제준(제곡), 순소호, 후비를 막론하고 蚩尤, 商契은 모두가 새의 숭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전설은 동방부족과 서방부족의 숭배 대상이 달랐음을 반영하며, 때문에 문화의 각 방면은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장례 방면에 있어서 「목자. 節葬」편에 “秦나라 서쪽에 饒渠國이 있는데 친척이 죽으면 장작을 모아다가 시신을 불사른다. 연기가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며 그런 후에 효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상고시대의 풍속을 이어 火葬을 행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원시문화의 여러 부분은 아직 독립되거나 분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들은 대개 원시종교 속에 숨겨져 있다. 예를 들면 大汶口 문화나 龍山문화 가운데 도기가마의 조형은 새의 형상과 비슷한데 고대 중국의 동방문화는 새토템 씨족 집단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馬家畝문화 씨족부락의 채색토기에는 새, 물고기, 사슴, 개구리 그리고 사람의 얼굴, 사람의 머리에 벌레의 몸을 가진 것 등의 형상이 있다. 이들은 모두 그 당시의 씨족토템이었을 것이다.

甘肅省 임조의 마가요에서 발견된 채색 토기에는 사람머리 문양이 있는데 “머리를 자르고 몸에 문신을 넣은 것”이 보인다. 李澤厚는 이것이 무슬의례의 중요한 내용을 지니는 것이라고 보았다. 대만 토착의 泰雅族도 문신하는 관습이 있는데 그들이 문신을 하는 데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옛날에 많은 젊은 여자들이 아무 까닭없이 계속 죽었는데 어느날 저녁에 갑자기 신령이 어느 여인 앞에 나타나 이르기를 “만일 문신을 하면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당시에 어느 남자가 여인네의 상의의 무늬에서 시사를 얻어 검댕으로 여자의 얼굴에 똑같은 무늬를 새겨 넣었는데 이때부터 젊은 여자들의 재난은 없어지고 동시에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한다. 두번째로는 문신을 한 사람은 죽은 뒤에 영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靈界로 들어 가려면 반드시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다리에는 귀신이 있어 감시한다. 만약 죽은 영혼이 생전에 문신을 하고 얼굴에 刺字하여 성인의 자격에 도달했다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길을 돌아서 와야하는데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서야 이를 수 있다. 세번째는 분신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옛날에 어느 남자가 여자에게 “네 얼굴이 심히 못 생겼으니 얼굴에 문신을 넣으면 예뻐질 것이다”라고 했다. 그 여자가 그러겠다고 대답한 후 그 남자는 검댕을 가져다가 문신 넣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태아족의 문신 도안은 대체로 뱀의 얼룩무늬를 모방한 것으로 뱀토템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배만족문신의 기원은 뱀 등줄의 무늬 및 사람의 모습, 사람의 머리 햇빛 등의 형상에서 변화되어 온 것이다. 배만족 부락의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문신 기원은 그들의 우두머리되는 조상이 뱀에서 난 蛇生 또는 太陽卵生이었으므로 후손들이 뱀의 무늬나 태양의 무늬를 새겨 넣는 것이 씨족의 표시라고 한다.

원시 사회의 여러가지 사회습관도 종교의 흔적이 깊이 찍혀 있다. 농경과 관련된 토지신에게 제사하는 것, 곡물신에게 제사하는 것, 선달

제사 등의 생산 풍습은 모두 강한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선달 제사는 농지에 지내는 제사였다. 「예기」의 기록에 의하면 매년 음력 10월에 사제를 거행하여 반드시 모든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주로 곡물신과 수확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이외에도 전답신, 움막신, 우물신, 발두독신 및 금수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냈으며 또한 사냥신, 호랑이신을 迎神하거나 거리신과 물도랑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음식과 의복방면에서는 「산해경」중에 나무와 비슷한 迷藪이 있는데 그것을 지니면 사람이 미혹되지 않고, 성성이라는 말 비슷한 짐승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잘 달리게 되고 물에 있는 育沛를 지니면 사람은 질병이 없어진다는 동등의 기록이 있다.

장례 방면에서는 각 씨족 모두가 스스로의 공동묘지가 있으며 씨족 구성원에 대한 장례식에도 일정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西安半坡유적의 씨족공동묘지에는 고분의 구멍이가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고 대부분이 머리가 서쪽을 향하고 몸과 사지를 반듯이 누운 상태로 장례를 지내며 순장품도 있다.

이밖에 연운항 장군암 A조암화에는 뾰족한 새부리모양의 정령같은 다섯 개의 머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벼이삭무늬는 모두 토지와 연관되어 있고 정령의 눈동자는 모두 동심원으로 표시했다. 실제로 이런 정령들은 봄의 생명력을 표시하며 岩畫는 일종의 봄의 제례의식을 표현한다. 또한 요동반도 후규의 신석기시대 유적 중에 중국 최초의 용의 석조가 발견되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원시문화를 표명하며 이는 원시종교와 명백히 한계를 그을 수 없으므로 원시문화는 결코 원시종교와 동떨어져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㉞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간사들의 Q.T 노트에서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항상 예비하고 계신다.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충성하고 있었기에 환상을 통해 주의 뜻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쉽지는 않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나의 삶은 변화될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야 함을 깨닫는다.

* 내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주님이 버리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자세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며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자.

* 나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양 착각 속에 빠져있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깨닫게 되었다.

* 사단이 여러 모습으로 나를 넘어 뜨릴려고 한다. 그것이 사단의 꾀계임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며 성령이 인도하셔야 됨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기도해야겠다.

*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함이다. 또한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셨다. 그중의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일이다. 사울이 변화되고 전도에 힘쓴 것 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하면서 전도에 힘쓰자. 주님은 나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 중국선교를 위한 이 일을 더 귀하게 생각하며 좀더 적극적이어야겠다.

* 나는 내가 힘든 일이나 귀찮은 일은 피하기를 좋아했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주님이 내 뜻에 맞춰 주길 원했다. 빌립의 순종하는 자세를 본 받아야겠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겠다.

내 평생에 주의 은혜가 ...

楮之明

(번역부 제공)

완고한 양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철저한 불교신자여서 불교교리는 어려서부터 나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1932년 내가 결혼할 때, 어머니는 나에게 예수를 믿지 말 것을 당부했다. (왜냐하면 나의 시댁은 기독교 집안으로 시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였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말을 내 마음 속에 새겨서 결혼 후에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다. 1944년 항일전쟁 중에 나는 시골의 시댁으로 피난하여 얼마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지냈다. 시어머니 앞에서 나는 주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곤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안에 먹을 것이 없게 되나, 또 쌀독에 쌀이 떨어지게 되나 두고 보자”고 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나에게 담결석증이 생겨 나날이 심해져, 1953년에 이르러 수술을 해야만 했다. 의사는 결석과 찌꺼기들을 모두 깨끗이 하고 담낭도 떼어 버렸지만 그러나 큰

돌은 뗄 수가 없어 남겨두었다. 퇴원 후에도 재발하여 상태는 더욱더 심해져 갔다. 바로 이 시기에 둘째 고모부가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울러 “너의 병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아마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다. 그리스도를 믿어 너의 구주로 삼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듭 권하였다. 그러나 나는 “고모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였다. 고모부는 눈물을 비오듯이 흘렸지만 나는 아무런 감동도 느낄 수 없었다.

놀라운 구원

며칠이 지난 후, 두 자매가 우리집을 방문하였는데 나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음을 알아차리고 말을 둘러대어 그들을 빨리 내보냈다. 한 자매는 성경을 꺼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 주었으나, 나는 그 뜻도

알 수가 없었다. 이어서 다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읽었는데,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음에 양심이 있으면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떠나면서 다시 말하기를 “당신이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그 날 저녁에 집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고 아이들은 잠이 들어 있었다. 나는 마음 속으로 그래 좋다 도대체 예수가 정말로 있나, 없나, 한 번 시험해 보겠다고 하면서 침상에 무릎을 꿇고 입을 열어 ‘주 예수여’라고 하였다. 그러자 곧장 큰 권능의 손이 내 뒷덜미를 눌러서 머리가 침상 앞으로 수그러졌다.

나는 즉시 고개를 들었지만 또 한 차례 누르는 바람에 고개는 또 다시 침상 바닥으로 수그러졌다. 이와 같은 일이 세번 거듭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주여 당신은 진실하시고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나이다”라고 말했다. 그 날부터 나는 내 죄를 회개했

다.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 또한 차례의 수술을 받았는데, 큰 결석을 꺼내고 난 의사는 “담관이 너무 좁아지고 담즙이 침전되었기 때문에 쉽게 결석이 유발되어 반드시 재발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퇴원 전날 저녁에 작은 아들이 꿈에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네 어머니의 병이 이미 나았고 퇴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나는 이 말을 내 마음 속에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왜 의사는 재발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께서는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하셨는지를 자꾸만 생각해 보았다.

철저한 변화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아주 열심이었지만, 직장일과 가정일로 인하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일은 거의 없어서 내 성경지식이란 보잘 것이 없었다. 그러던 중 1957년 정풍운동이 시작되어 범법자로 걸리게 되자 나는 보복과 사람들의 원망이 두려워 주를 떠났다. 1964년말 장기간의 병가를 얻어, 하루는 혼자 집에서 종이조각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성령이 나에게 “네가 지금 쉬고 있으면서 아직도 내 앞으로 돌아오지를 않는구나”라고 하셨다. 그 때가 마침 주일이어서 그 날 예배에 참석하였다. 교회로 가면서 마음 속에는 은혜를 저버렸다는 자책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

아가 죄악된 향락을 즐겼던 것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괴로웠다. 교회에 들어갈 때에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였고 사람들을 쳐다 볼 수도 없었다. 마치 범 죄자가 심판대에 끌려 나가는 것 같았다.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나는 주님의 발 앞에 꿇어 앉아 대성통곡을 하였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불의를 씻어 주소서. 주여, 나는 매일 5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으며, 내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의 성장

내가 다시 양의 무리에게로 돌아왔을 때에는 교회의 문이 정치문제로 닫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참석할 만한 모임은 없었다. 성경지식이 알고 특별한 교육도 받지 못한 나는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내가 성경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하는 일이었다. 주님은 나의 우매함을 아시고 한 자매를 보내 집에서 함께 지내도록 하여 여러 방면에서 그 자매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점차 바른 길로 들어갈 수 있었고, 또한 기도의 범위가 넓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녀가 해석을 해주었다. 한 번은 그 자매가

나에게 “우리들은 2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내가 가고 나면 당신은 누구에게 물어보겠는가?”라고 물으면서 예수님께 직접 간구하여 ‘주님이 말씀은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라고 기도하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꼭 기억하여 그대로 지켰다. 그 뒤로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바로 신앙서적이니 형제, 자매와의 교제를 통하여 그 의문을 풀어주셨다. 어떤 때는 성령께서 친히 해석해 주신 적도 있는데, 한 번은 내가 “주님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이 됩니까?”라고 물으니 성령께서 나에게 ‘너희 집에 있는 일꾼이 네가 무엇을 하라고 분부하면 그가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라 대답해 주셨다.

꿈임없는 핍박

1966년 6월, 나는 꿈 속에서 두 명의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은 하늘에서부터 하얀 관복을 마루에 내려놓았다. 크고 작은 두개의 막대기를 관 옆에다 놓고 가면서 말하기를 “자매여 관은 여기 있는데, 이 두개의 막대기는 네가 지고 가라”고 했다. 그들은 “이것은 네 것이니라”하고는 곧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잠에서 깨어난 후, 그 의미를 알지 못하여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주님께 해석을 간구하였다. 그러다가 1개월 후에 갑자기 깨닫게 되었는데, 긴 막대기 작은 막대기는 바로 십자가가 아닌가? 그 때 나는 주님께 부

르짖으며 “주여 이렇게 큰 십자가를 내가 어찌 질 수 있겠나이까?” 2개월이 지난 8월 27일 홍위병들이 처음으로 우리 집을 수색하였다. 가옥계약증서, 차용증서, 금은 골동품, 서화, 옷가지 등을 모두 몰수해 갔다. 집을 수색할 때, 나는 마음 속으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와 이름이 내가 찬송하리다”라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도하자, 마치 많은 물건들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심령이 평안하여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다.

1966년 9월 2일 제2차로 홍위병이 들어와 수색을 하면서 돈을 내어 놓으라고 요구했다.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혁대를 가지고서 나를 쳤다. 나는 마음 속으로 묵묵히 “주여, 나는 마땅히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당신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 때문에 기꺼이 이 최악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의 침탈음과 조롱함을 달게 받으셨으며, 채찍으로 맞으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주님, 당신도 이전에 채찍을 맞으셨는데, 나는 더욱 마땅히 맞아야 합니다.”라고 기도하였다. 놀랍게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자, 비록 채찍이 내 몸에 가해졌지만 조금도 아프지가 않았다. 1966년에 당한 각종 재난 가운데 그

속에는 아주 놀라운 일들도 많이 있었다.

1967년 집이 공안요원에 의해 점거되어 우리는 밖으로 쫓겨나 잠시 여인숙 생활을 하게 되었다. 당시의 재난이 너무 심하여 나는 금식기도를 하였는데, 매일 한 끼만 먹으면서 핏박받는 교회와 형제, 그리고 내 자신의 처지를 위하여 하루에 다섯 차례씩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1년 반이나 하였다. 하루는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시편 126편을 읽으라고 말씀하셨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경을 펼쳐 본 뒤에 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사실을 많은 지체들에게 알려 주면서 다만 그때가 언제인가는 알 수 없을 뿐이라고 들려 주었다.

고난의 시작

1974년 음력설 전에 내 마음에는 고난이 곧 닥쳐오리라는 느낌이 왔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인가를 알 수 없어 매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고 나의 생명을 희생물로 드리기를 간구하였다. 또한 말씀 안에서 나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나는 성경 시편 27편을 펼쳐 들었다. “여호와是我的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하리요.”라는 말씀이 있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하였고 나의 힘이

되었다. 형제, 자매들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쓴 잔이 거두어지기를 기도하였다. 주님의 명령은 정하심이 있으며 반드시 이루시겠지만 주님은 풍족한 은혜를 주시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보살피며 지켜주신다. 주님은 또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심령으로 감지케 하였다. 음력 12월 초, 나는 자매를 우리 집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성경 및 신앙서적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은 어느 형제가 나에게 닭 한 마리를 보내 주었으므로, 나는 성탄절을 기다려 형제, 자매를 함께 불러다가 교제하려고 했다. 성탄 2일 전에 내 마음이 매우 불안하여 그 모임을 취소하였다. 그렇지만 그 닭을 보내준 형제만은 꼭 청하여 식사를 함께 하고 싶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난 뒤에도 심령은 여전히 편안치 않았고, 그런 이유들을 설명할 수도 없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왜 내가 이렇게 심령이 편치 못한지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나의 일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 놓으면서 아뢰었는데 “주님, 형제를 청하여 먹는 것이 적당하지 않습니까?”하고 그 형제를 청하여 식사를 하려는 일을 내어 놓았을 때 내 심령은 곧장 위로 부터 내려오는 기운으로 아주 편안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날 밤 즉시 그 형제에게 알려서 절대로 우리집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 감사하게도 이 형제는 나의 일에 연루되지 않게

되었다. 1975년 1월 공안요원과 간부들 20-30명이 우리집을 에워싸고 체포증을 꺼내어 나를 악질 반동분자라고 하면서, 집수색을 시작하여 내가 매일 읽던 성경책과 형제에게 온 편지 2통을 압수한 뒤 나를 감옥으로 보냈다.

법정에서의 증거

그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러 왔을 때,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직 중요한 평정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감옥에 들어간 뒤, 곧장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나는 속으로 "나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시어서 반드시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막아주옵소서. 또 불쌍히 여기시어 결코 마음대로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다. 법관이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속으로 주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길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구원을 받은 과정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세 명의 법관과 방청자들은 모두 정신 없이 듣고 있었는데 이 때 나는 입을 닫고 더 말하지 않았다. 법관이 "너는 왜 계속 말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당신들이 내가 미신을 선전한다고 말할까 봐서입니다." 그들은 곧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 너는 지금 미신을 선전하고 있다." 나는 즉시 "당신께서 나에게 어째서 예수를 믿느냐고 물

어 내가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만약 내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당신들은 또 내가 재판을 거부한다고 했을 것이고 요구대로 말을 하니 미신을 선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반박했다. 그들은 대답할 말이 없어 그저 "네가 예수를 선전하는 것은 미신이다"라고 말하였다. 나는 "헌법에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신앙의 자유를 서로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허락되지 않는다면, 왜 헌법에서는 종교, 신앙의 자유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헌법은 대외적인 것이며, 대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내가 "오, 헌법이 대외적인 것이며, 대내적인 것은 아니군요?"라고 하자 그들은 화를 내며, 탁자를 치고 "내가 말하는 것과 네가 전도하는 것을 금한다"고 했다. 나는 재판에 20여 차례 회부되었다. 매번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내가 묵묵히 하는 기도를 주께서는 모두 들으시어 법관들이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들추어 나를 심문했을 때, 나는 두세 마디 말로써 그것을 지나칠 수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

하루는 감옥에서 십자가에 관한 노래를 하고 있을 때, 내 마음 속에서는 어떤 기운이 흘러 심령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찼다. 며칠 뒤 갑자기 어떠한 말이 들려왔다. "나의 분노는 눈 깜박할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또 약 10분 뒤에는 "나의 은혜는 평생토록"이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오후에도 또 "나의 은혜는 평생토록"이라고 했다. 감사하신 주님, 당신은 자비와 연민의 주님이시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나는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압니다. 또 하루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원은 내게 있느니라. 내가 반드시 보응하리라" 하셨다. 나는 2년 8개월동안 감금된 뒤에 석방되었다. 1979년 3월 중순에는 반혁명분자라는 이름을 벗고, 4월 25일에는 명예회복이 되었다. 그 해 8월에 나와 한 북쪽에서 온 한 자매와 각지를 다니면서 지체들을 방문하였고 교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충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나는 고난 속에서 얻어진 이 간증을 주님을 뵈을 그 날까지 지키기를 소망한다. ☁



에벤에셀의 하나님

안지훈

(건국대학교 중문과 4학년 재학중)

이런 거창한 제목의 글을 쓰기에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1990년 12월 29일부터 91년 2월 25일까지의 대만 연수생활을 간략히 적어 보고자 한다. 이번 대만 연수의 목표는 크게 두가지였는데, 하나는 믿음의 성장과 중국 평신도 선교사로 가기 위한 자신의 점검, 다른 하나는 어학연수였다.

29일 밤, 대만 중정국제공항에 도착, 약속된 후배의 마중을 받은 후,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부터는 방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해야만 했다. 이곳에서 어떻게 싸고도 깨끗한 방을 구할까 난감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 거처를 이미 마련해 두셨으리라는 작은 믿음이 생겼다. 마침, 우리 중국어문선교회를 통해 안면이 있던 한 대만 자매의 소개로 창립된 지 일 년밖에 안 된 작은 교회를 찾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형제를 통해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 형제와 함께 세들어 살던 친구가 결혼으로 한 10일 전에 이사갔는데, 자기 집에 두 달 간 무료로 와서 살아도 좋다

고 하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형제에게 사랑의 큰 빛을 진 셈이다.

이사하여 짐정리를 하며 보니 방은 그런대로 깨끗하였으나 공동화장실은 더럽기 짝이 없어서, 먼저 화장실 청소를 맡겼었다. 덕분에 이튿날 교회에 가니 형제자매들이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식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해 달라는 농담을 듣게 되었다. 교회는 교인들이 청소하는 까닭에 어디 못지 않게 깨끗했다. 예배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 교인이 모여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는데 무척 아름답게 보였다. 금요기도회에는 모인 이들이 눈물 흘리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당이 우리 나라의 교회만큼이나 많고 집집마다 개인 사당을 가지고 있다는 대만교회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겠는가?” 하는 선입견이 있었던 내게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1월 말 대만 선교단체가 주관한 ‘농촌복음전도단’에 끼어 3박 4일 동안 타이씨(台西)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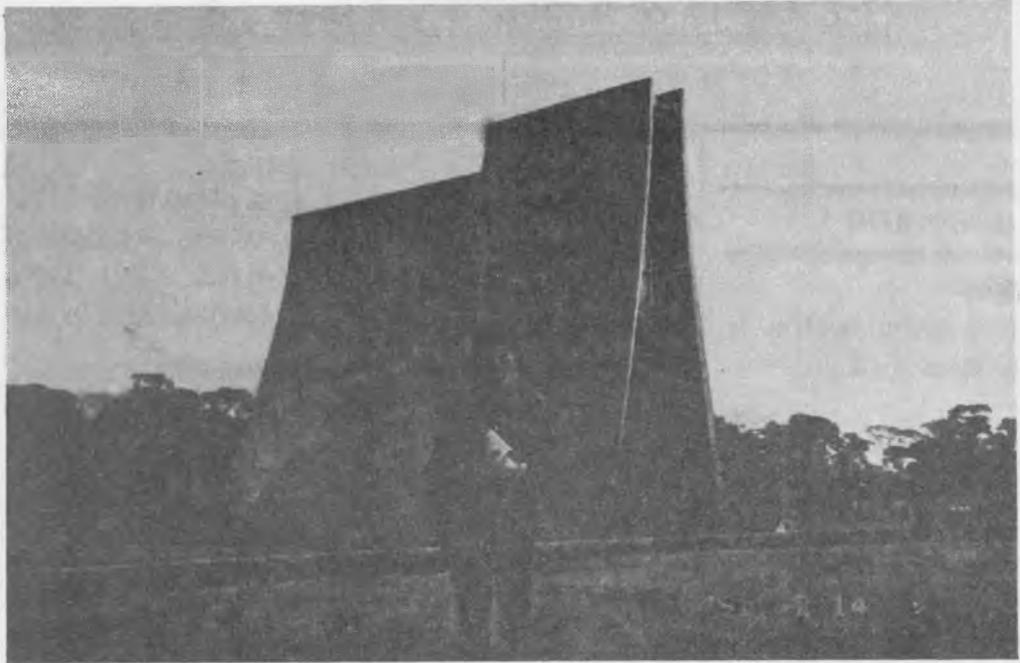
형편없는 음식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평없이 모두들 복음 전하기에 최선을 다했다. 내게 부딪힌 한 가지 문제는 내가 배운 표준 중국어가 사투리를 많이 쓰는 농촌 지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대만 T.V 화면에는 꼭 한자 자막이 있을 정도로 표준어와 사투리 사이에는 의사 소통이 안 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내 파트너가 사투리로 복음전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어떤 이들은 “예수가 왜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는가? 만일 그가 중국인이라면 믿겠다.”며 복음을 거부하기도 했으나 어떤 이는 예수를 영접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우리는 그저 전하는 자일 뿐이요, 마음 문을 열고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조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사라는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나도 부족한 중국어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에게 그림으로 된 전도 책자를 보여주며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겠노라며 내 파트너를 따라 기도를 할 때, 나도 주님께서 그 아이의 길을 인도해 주



台中 東海大學안에 있는 敎會 앞에서

시기를 기도하며 중국 선교를 추상적이 아닌 현실적인 것으로 느끼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돌아오기 얼마전, 남쪽으로 여행해 보고 싶어 배낭 여행을 떠났다. 여행도 여행이려니와 여행하며 하나님과 은밀히 대화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이기도 했다.

남쪽 도시 까오슝(高雄)에서는 잠잘 곳을 찾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는데, 마침 한 대학생을 만나 해결하기도 하고, 해변가에서 사진을 찍다 만난 관광객과 이야기, 저 얘기 하다가 그들의 여관방에 신세를 지기도 했다. 특별히 그들은 중학교 교사들로서, 특히 기독교

인이던 한 여선생님의 은혜로운 찬양은 잊을 수 없다. 아뭏든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을 고백치 않을 수 없다.

기독교인이 10%도 안 된다는 대만에서 나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과 하나임을 느낄 수 있었다. 나아가서 이런 만남들을 통해 내가 앞으로 무얼해야 할 것 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또 이번 연수로 물질의 필요를 아시고 내게 과수석의 영광과 전액 장학금을 허락하셨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임을 이 모든 것을 통

해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모든것이 부족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오니 겨자씨만한 믿음 주시고 주께서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도록 훈련시키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본 선교회 회원)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 활동 상황

☐ 방송대 ☐

서울지역

개강 후 열심히 공부하며 활발하게 행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3월5일 총동원집회를 가짐으로써 오랫동안 안 보이던 학우들과 졸업한 선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경반의 개선할 점과 개선방향 등을 토론했습니다. 3월14-15일 중국어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십여 명의 성경반 학우들이 함께 참석하여 방송대 중국어성경반을 소개하고 중국어로 특송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다음주 화요일(3월 19일)은 성경반 자체에서 신입생 환영예배를 드렸는데 40여 명의 신입회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연이어 3월26일 신입생 환영 야유회를 도봉산으로 떠나 약 삼십여 명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성경공부는 1부에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으며, 2부 분반공부 때는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학년이 바뀌면서 새로 반이 편성되었고 믿음반(신입생)은 박성주 교수님과 선배들이 지도하므로 모든 학사에 관한 상담까지 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송대성경반에서는 회지를 계간지로 발간할 예정이므로 관심과 기도와 많은 원고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지역

지난 1월 방송대 중국어과 대만어학연수에서 박성주 교수님을 통하여 중국선교회의 중요성과 중국어문선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학우들을 중심으로 인천에서도 중국어성경반의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어 91년 신학기를 맞아 학생회의 지원을 받아 중국어 성경반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7)는 말씀을 믿고 신·편입생을 중심으로 지난 3월 23일 부천에 있는 은석교회에서 방송대 성경반(인천)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재 15명의 회원이 있으나 6명이 모여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회원의 임원화(?)가 불가피하지만 재학생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으며 특히 믿지 않는 학우들을 전도하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7:00-9:00까지 갖게 되며 1부에서는 중국어찬양, 초급 중국어(신입생), 天愛生活之道(재학생)를 그룹으로 공부하고 2부 전체순서에서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및 성경암송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중국어성경반이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석교회 전판덕 목사님, 그리고 중국어문선교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 기도로 지원해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조성남(032-513-3737)
경기도 부천시 남구 심곡1동 588번지 4동4반 은석교회

남 성경반

저녁시간에 시간을 갖기 어려운 학우들이 매주 월요일 오전(10:30-1:00)에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서 회장인 박정숙 집사를 주축으로 10여 명이 모여서 중국어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1부에는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2부에는 중국선교와 중국어문선교회 등을 위하여 기도후원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뜻있는 분들이 이 모임에 많이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박정숙(02-936-6007)

☐ 서울대 ☐

1월22-23일 양일간의 기도원 M.T에서 결정된 대로 2월은 신입생 유치작전(?)에 공을 들였습니다. 총무의 일사불란한 지휘체제에 신입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성곤 지도교사의 협조로 학적부에서 신입생들에 대한 기록(특히 종교란)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개별접

촉 내지 서신접촉을 시도했습니다. 20명의 신입생 가운데 약 9-10명이 그리스찬, 정확히 얘기하면 종교란에 기독교로 표기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과의 접촉을 위해 3월초에 있었던 신오리(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준말-수안보에서 있었음)에 총무, 회계, 찬양담당 셋이 특파되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무리수를 둔 것이기는 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신입생들과 개별접촉의 기회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3월 12일은 예정대로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3명의 신입생(남2, 여1)이 참가하여 자기 소개를 하였는데 모두 건강한 신앙인들인 듯하여 든든하였습니다. 이제 식구가 늘어 3학년 1명, 2학년 2명, 1학년 3명 모두 6명이 되었다. 그리고 4학년 학생 하나도 그날 처음 참석하여 계속하겠노라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총무 김세운군이 신입생들의 중국어 기초를 지도하려고 하며 다른 이들은 지도교사 중심으로 누가복음을 읽어 내려갈 예정입니다. 우리 중에 기쁨과 보람과 찬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인하대

인하대 성경반은 겨울방학 중에도 꾸준히 모임을 가졌으나 세 명 밖에는 거의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

시에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으며 인천의 모임이 열려서 더 많은 형제자매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길하에 이런 기도들이 응답되어서 인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5일(화요일)에는 인하대 후문 정석항공공고옆에 위치한 인천성광교회(양치호 목사)가 장소를 제공하여 20여명의 형제자매들이 모여 양치호 목사님의 설교로 창립예배 및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회칙을 제정하고 이 후에도 계속 성광교회에서 모임을 갖기로 정하였습니다. 임원으로는 회장에 이민종 형제(4학년), 부회장 이현주 자매(4학년), 총무 남상철 형제(2학년)를 선출하였으며 인천지역 방송대 자매님 두분과 중국어문선교회부총무가 참석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임은 모든 학년이 다 학교에 나오는 날인 매주 목요일 5:30분부터 7:30분까지 성광교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10명 내외의 형제자매가 모이는데 1부에는 요한일서로 성경공부를 하고, 2부에는 초급과 중급으로 나뉘어져 공부를 합니다. 초급은 중국어를 모르거나 기초가 약한 사람들이 공부하며 중급은 한경직 목사가 쓴 "기독교란 무엇인가?" 중국어판을 교제로 삼아 자유토론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반을 거쳐갔던 형제자매는 많으나 꾸준히 나오는 형제

자매가 적은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1학년이 없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1~2학년이 중국어로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14억 중국을 향한 비전이 생겨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실 지도교수님 보내주시고 준비된 자들을 불러 주시며 새로 뽑힌 임원들이 충성되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창기 멤버이자 주님의 복음 사역에 열심이던 김수현, 이운정, 유승희 자매 등은 지난 2월 23일에 졸업하였습니다. ☺

※ 전국대학의 중국어성경반은 본 선교회에 자신의 활동상황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본 선교회는 이를 회지에 소개함과 아울러 필요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각 부서 활동보고

◇ 번역부 ◇

그동안 격주제로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임을 가졌다. 「종교와 중국전통문화」를 부지런히 공부해 가는 가운데 회원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우리들 스스로 발견하며, 주님이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한다. 나희숙 자매가 새로이 참석하여 함께 하는데, 몇몇 자매가 시간이 가능하면 참여하고 싶다고 알려와 합의 하에 토요일 오후로 모임을 옮길 계획도 가지고 있다. 새로이 참석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총무 이민선 자매(T. 763-8463)에게 연락하여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함께 환영의 답변을 듣게 될 것이다.

◇ 교육부 ◇

4월 1일부터 제4기 선교중국어연수가 실시되었다. 중국선교에 비전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고 강사선생님도 열의를 다해 가르쳐 주시고 있다.

이 선교중국어연수가 유종의미를 거두길 바란다.

제5기에 사용할 <예수 生平故事>가 개발중에 있고 교재용 테이프도 개발중에 있다.

교육부 회원들과 정기모임을 갖지 못했는데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교육부의 많은 회원들이 동참하여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교육부에 발전이 있으리라 믿는다.

◇ 연구부 ◇

연구부에서는 '방한중국교포 선교 보고서' 초안이 완성되었으며 연구부의 기획사업으로 "中國社會主義時期的宗教問題"라는 중국의 종교정책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가 모아진 책을 번역 중에 있으며 황민아 자매(숙대졸)와 이숙현 자매(성심여대졸)의 도움으로 일부가 번역되었다.

연구부에서 번역해 왔던 중국 기독교 인물소전의 번역을 서울대 중국어성경반에서 해주기로 하였다. 연구부에서는 CCRC의 "中國與教會"에서 종교소식을 번역하여 회지에 실기로 하여 1990년7~8월호인 78호부터 82호까지 번역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번역하였으나 정리되지 않았던 소책자인 "중국기독교번역소사"가 정리 작업 중이다.

중국선교에 관한 특강을 선교회 간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며 4월 29일에 첫 실시될 예정이다.

연구부는 조만간에 정기모임을 가질 계획이고 모임이 시작되면 부원들에게 곧 모임소식을 알려드릴 예정이다.

◇ 기도후원회 ◇

박지화 전도사를 위시하여 김은혜 집사, 권영찬 집사, 김숙희 집사, 유정숙 집사, 윤오복 집사, 박예화 집사가 촛불기도회란 이름으로 매월 둘째 목요일 오전 11시에 모임을 갖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임의 동기는 중국어문선교회 기도후원과 물질후원, 대륙가정교회 기도후원과 물질후원 등이다.

또 매주 월요일 낮 성경반 공부가 끝난 후에 중국선교를 위한 정오기도회 모임이 있다.

선교에 사명의식이 있고 믿음이 신실한 자가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길 바란다.



최근 중국 동향

종교

* 유교적 전통의 가치관이 본고장인 중국에서는 거의 사라진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비교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한 金元用(성군관대)교수는 1966년부터 毛澤東이 죽은 1976년까지 계속된 문화대혁명이 수천 년 간의 유교적 가치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91. 2. 19)

* 중국교회가 세계교회협의회(WCC)회원으로 복귀했다. 중국교회는 WCC가 창립되던 1948년 성공회·감리회·침례교·장로교 등 4개 교단이 참여했으나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WCC가 이를 비난하자 50년 이후 40여년간 WCC활동에 불참해 왔다.

중국교회의 WCC가입은 현재 업저버 자격으로 WCC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북한의 WCC가입 여부에도 눈길이 쏠리게 하고 있다.

(중앙일보 91. 2. 21)

* 중국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기독교 인구에 대한 여러가지 조사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극동방송 '방송선교' 1·2월호는 지난 1987년에서 1989년까지 2년 동안 새로 입적한 공산당원의 수는 8% 가량 감소한 반면 기독교인 수는 6백%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한 소식통은 현재 중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해외 기독교인들의 방문으로 공안당국의 심문을 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한다고 전했다.

(크리스찬신문 91. 3. 9)

* 중국선교가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중국선교 관계자들은 조심스런 활동전개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중국선교 자세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극동방송의 주지호 목사는 홍콩의 한 시사월

간지가 지난 해 9월호에서 '기독교-지금 대륙에서 거대한 반항세력'이라는 제목으로 중국교회 의 근황을 보도한 바 있다고 말하고 이 보도의 내용을 소개했다.

공산당이 종교활동을 통제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해외 적대세력이 중국 대외개방정책을 이용하여 침투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날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근래에 종교계통의 사상정치활동을 확실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애국단체(종교공인기구)와 사원, 묘, 교회의 관리사업이 해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사는 또 지난해 11월 22일 인민일보에 실린 글들에서도 '신사 숙녀'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또 다시 '동지'라고 칭호를 바꿔 옛날의 혁명적 사고방식을 회복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종교선교 자세에 대한 반성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주목사는 이러한 정황을 모른 채 실수를 저질러 선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찬신문 91. 3. 16)

* 오는 5월 한국교회 목회자가 공식적으로 중국교회에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호주 캔버리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기간 중 한국측은 중국기독교협의회 덩광원회장에게 공식초청을 요청,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목회자 신분으로 중국에 공식방문은 지금까지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관련자뿐이었으며 이번 5월 중국교회 방문은 한국교회로서는 처음이다. 이밖에 중국교회 방문 때 남경신학대학에 신학서적 구입용 2만불을 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찬신문 91. 3. 16)

* 중국 공산당의 당원 가운데 종교에 귀의, 당 집회 대신 교회나 절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수

가 늘고 있다고 <신화사통신>이 2월 12일 <농민 일보>를 인용, 보도했다.
(크리스찬신문 91. 3. 23)

정 치

*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매년 10% 이상씩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紙가 7일 보도했다.

이같은 국방비 대폭 증액방침은 지난 1월 중순에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비밀회의에서 결정됐으며, 오는 25일부터 개막될 全人大에서 추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91. 3. 8)

* 정부는 中國과의 수교를 서두르지 않는 대신 무역대표부를 통한 양국의 실질관계를 심화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91. 3. 18)

* 李鵬 中國총리는 25일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 『중국은 朝鮮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北韓)의 제안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91. 3. 26)

* 中·蘇 양국정부는 26일 北京에서 모스크바~北京~서울을 잇는 항공로 등 3개노선의 개설을 승인하는 항공협정에 서명했다고 日本 마이니치(毎日) 신문이 이날 北京發로 보도했다.
(중앙일보 91.3.27, 국민 3.27, 조선 3. 28)

* 中國의 막후 최고실력자 등소평은 내년에 열릴 예정인 제14차 黨 대회에서 총리 李鵬을 경질할 구상을 갖고있으며, 국가부주석 王震을 비롯한 보수파 지도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紙가 3일 보도했다.
(조선일보 1991. 4. 4)

경 제

*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4차회의가 25일부터 2주간 북경에서 열린다.

중국 국무원 총리 李鵬은 개막연설을 통해 앞으로 대부분의 국내물가를 국가가 통제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경제의 힘이 중국경제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급진적 개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91. 3. 25, 국민일보 91. 3. 26)

* 빠르면 금년 중에 중국교포 등 값싼 해외노동 인력이 본격 수입될 전망이다.

노동부가 수입을 고려하고 있는 해외인력은 임금이 비교적 싼 중국교포 및 동남아인들로, 올해에는 우선 석탄공사 산하 탄광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해외인력을 채용해 본 뒤 민영탄광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91. 2. 27)

* 한국 원자력연구소는 최근 中國 核動力運行연구소와 원자력발전소 가동전 검사기술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 中國大亞灣에 건설중인 중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廣東1,2호기에 대한 가동전 검사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91. 3. 2)

* 중국정부는 중국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 가운데 1백 대기업을 선정, 전면적인 기업구조 조정을 단행키로 결정했다. 4일 홍콩의 明報는 중국 국가경제체제 개혁위원회 張彥寧 부주임이 전날 북경에서 열린 「대기업 공작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앞으로 진행될 1백 대기업을 선정 작업에는 국가경제 체제 개혁위, 국가계획위, 국가생산위 등 중국의 최고 경제정책 담당기구들이 모두 동원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91. 3. 5)

* 中國은 앞으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新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중국 국가체제개혁위원회 陳錦華주임이 밝혔다. 중국 경제개혁의 최고사령탑중 한명인 陳錦華는 「사회주의가 시장경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사회주의경제의 번영과 인민들의 생활 수준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1. 3. 11)

* 中國의 瓊春, 蘇聯의 포시에트, 그리고 北韓

의 雄基 등 3개국 접경 도시를 잇는 최초의 공동경제개발지역 설치문제가 중국정부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고 교도(共同) 통신이 중국 吉林省 延邊 조선족자치주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중앙일보 91. 3. 19)

* 中國 중앙정부가 韓國과의 정치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별다른 시사가 나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해에 접한 中國 해안도시들은 韓國자본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일보 91. 3. 19)

* 중국은 오는 25일 열리는 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 중국의 외국투자 또는 합작기업들의 소득세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중국관영 新華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일보 91. 3. 21)

* 中國에 韓國업체 전용의 전자 섬유공단을 건설하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공단후보지로는 현재 天津과 靑島가 검토되고 있으나 국내기업들은 공업용수공급 및 기능공양성, 수송망인접성이 뛰어난 靑島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91. 3. 21)

* 올해 中國과 韓國간 무역을 비롯한 경제협력 전망은 지난 89년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며, 최근들어 한국기업들의 중국진출 열기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紙가 25일 보도했다. (조선일보 91. 3. 26)

사 회

* 中國은 앞으로 10년간 새로운 노동인구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은퇴노동인구가 증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2000년에 가면 약 1억의 실업인구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홍콩의 明報가 中國국가계획위원회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국민일보 91. 3. 18)

* 중국 국민들 중 약 7억 명이 최소한 한 번 이상 A형 간염에 걸린 적이 있으며 6억 명 가량은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中國의 健康報가 21일 보도. (중앙일보 91. 3. 23)

* 북경의 8백 30여만 자전거 이용자들은 다음달부터 자전거를 타려면 면허세를 물어야 하게 됐다. 중국정부는 북경과 인근 천진市の 자전거 이용자들은 4元(5백원)을 당국에 낸 뒤 자전거 뒤에다 조그만 붉은 색 금속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91. 3. 23)

문 화

* 지금까지 한국학생의 공식 유학을 허용하지 않던 중국정부가 처음으로 한국학생의 단기연수를 공식 허용한 것으로 밝혀져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중국정부의 한국학생 단기연수 허용은 양국간 장기유학생 교류와 학자교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동안 비공식 개인차원에 머물렀던 양국간의 학술교류를 본격화시킬 신호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일보 91. 2. 19)

* 중국은 그 동안 북한에만 유일하게 허용해온 중국 국내 고고학분야의 탐사 및 발굴작업 참여를 앞으로 전세계 다른 국가들의 학자들에게도 개방, 해외 고고학자들이 중국과 공동으로 고고학적 탐사와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홍콩의 大公報가 22일 보도했다. (조선일보 91. 2. 23)

* 한중문화협회는 총4억원의 예산을 들여 中國 延邊에 「작가의 집」을 건립한다.

이번 「작가의 집」 건립은 작년 中國작가협회 회 延邊분회의 요청을 받아 국내 문인들의 모금으로 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한중문화협회가 맡아 이루게 된 것. 「작가의 집」은 중국 조선족 작가들의 문학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창작이론 연구, 국내 작가와의 교류, 조선족 인재양성, 올바른 한글사용·보전활동 등을 하게 된다. (중앙일보 91. 3. 23)



宗教消息

라마승을 위한 애국주의 학습반 설치

《西藏日報》의 보도에 따르면 중공의 성장자 치구위원회 부서기 江村羅布는 이 지역의 당정 간부회의에서 강화를 발표하고 티베트의 수도 라싸는 분리주의자의 파괴음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티베트 수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엄격한 행정통제를 실시하고 아울러 티베트의 라마승을 위하여 더욱 많은 애국주의와 국가통일 학습반을 개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明報》1990.9.17)

북건성 - 15명의 천주교 성직자가 체포됨

로마교황청에 충성하는 북건성의 성직자 15명이 7월 말 갑자기 들이닥친 수사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북건성 종교사무국 余險峰은 9월초에야 이 소식을 확인하였다. 謝士光 주교, 朱如慈, 劉光品, 鄒希錦 신부 및 여섯명의 젊은 수사들은 북안(福安)시에서 會務를 토론하는 회의중에 체포되었다. 또 다른 장소에서 黃守誠 부주교 및 4명의 집사도 체포되었다.

공안국은 체포된 인사들이 불법으로 신학원을 운영하고 신부를 축성했으며 18세 이하의 아동과 소년들에게 전도하였고 천주교애국회를 비난했으며 독립, 자주, 자영하는, 교회 및 정부가 인가한 공개교회의 신부와 교우를 반대하였으며 사단등 기법과 출판법을 위반했으며 아울러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았으며 중국헌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고 발표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압수된 물품 중에는 종교특별대표가 발표한 “八條指示”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성의 가정교회는 이 일에 대하여 8월10일에 북건성 동부천주교구의 명의하에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의 내용은 “불법조직”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체포한 것은 “엄중히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해외천주교의 지지와 이 인사들의 석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성명서는 교회와 바티칸의 관계는 순수하게 교리문제에 한하며 결코 정치색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성명

서에는 그 지방의 다른 주교 및 신부들도 같은 수배와 위협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정상적인 종교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明報》1990.9.18), (《公教報》1990.10.5), (“Asia Focus” 1990.11.3)

광둥성 - 삼자 40주년을 경축함

광둥성에서 거행된 삼자 40주년 경축회의에는 180명이 넘는 신도가 출석하였다. 종교사무국의 한 관리는 과거 40년간 성내에서는 모두 56명의 신도가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그 중에는 11명의 여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신도수는 중국 공산화 첫 해에는 7만명이었으나 지금은 14만명으로 늘어났고 광둥성에는 모두 232곳의 교회와 165개의 집회소가 있다. 광둥성 협화신학원은 1986년에 다시 개설되었다. (《新華사통신》1990.9.22)

양회회의가 상해에서 소집됨

기독교삼자애국운동 제4회 위원회 및 중국기독교협회 제2회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8월 22일에서 28일까지 상해에서 119명의 위원과 업저버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회의는 丁光訓이 진행하였고 기협 부회장 沈以藩이 사업보고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아래의 문제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1. 삼자애국방향 견지, 삼자애국교육 진행.
2. 신학교육과 사역자양성
3. 연합을 견지하고 분열을 반대한다.
4. 교회의 독립, 자주, 자영을 견지하고 침투를 반대한다.
5. 두개의 문명건설에 투신하고 사회에 봉사한다. (《天風》총94기 1990.10.1)

천주교도의 “新天地關社運動”

홍콩의 전도와 민생문제에 관심이 있는 천주교도들이 발기한 조직 “新天地關社運動”이 9월30일에 성립되었다. 이 회의 준비위원회 주석 장영휘는 이 조직은 장차 천주교도의 관점에서 사회에 대한 홍콩인의 관심을 표현할 것이며 홍콩이 97년에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교인들은 마땅히 주

체적으로 홍콩의 장래에 대한 의견을 표현해야지 교회가 그들을 대신하여 발언하기를 기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회의는 사회정책 및 광범한 사회적 사건을 집중 연구함과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정부와 공공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Asia Focus” 1990.10.6) (《公教報》 1990.10.26)

대만 신부가 대륙당국의 “교육”을 받음

중국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신부 胡英良은 금년 4월에 하북성 친척방문기간중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천주교당에 들어가 전후 11차례 성례를 집전하고 아울러 대만에서 가져온 경서를 발표하여 정부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으며 그 결과 관련부서는 그에 대하여 비판교육을 행했으며 그에게 정부의 종교정책과 대만에 대한 방침을 주입시켰다. (《信報》 1990.10.7)

삼자 - 趙復三의 부주석직을 해임함

1889년에 파리의 국제회의에 참석한 후 줄곧 돌아오지 않고 있는 조복삼 목사가 삼자 부주석직에서 해임되었다. 이에 앞서 그는 人代 대표의 자격을 잃은 바 있다.

삼자 비서장 沈德裕은 전국양회위원 전체회의에서 회의 참석자 만장일치로 《조복삼의 모든 직무를 박탈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그가 해외에서 국가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많은 의견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天風》 총94기 1990.10.1) (“Asia Focus” 1990.10.13) (《公教報》 1990.10.19)

趙復三 - 개신교의 삼대발전방향에 대하여 언급함

전 삼자 부주석 조복삼 목사는 미국 루터회 백주년 기념식에서 개신교는 현재 영성이 떨어져 전도가 그리 밝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경제 및 정치문제가 가져다 준 심각한 신앙의 위기와 영성의 실추 및 불안정한 국면에 직면하여 ① 신세대의 교역자 양성 ② 개신교가 교육 및 의료방면에서 사회에 대해 봉사할 것 ③ 더욱 과격으로 복음이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전통 및 중국문화전통을 융합시킨 새로운 소식이 되게 할

것. 등 개신교가 신속히 발전시켜야 할 세가지의 범주를 열거하였다.

(“South China Morning Post” 1990. 10. 18)

신강성 - 최근에 새로이 공포한 종교적 금지 조항

《新疆日報》의 보도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4개월전 회교도의 소란으로 22명의 공안원과 시민이 사망했음을 감안하여 9월에 새로이 공포한 법령 가운데는 회교 성직자가 “聖戰”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과 외국인과의 접촉을 금지시켰다.

새로운 법령은 구역내의 승려나 개신교 및 천주교의 목회자에게 균등하게 적용된다. 그들은 분리주의자에 대한 지지와 공산당의 영도에 대한 반대 및 종교를 방자한 당국의 가족계획정책에 대한 도전을 금지당했으며 아울러 외국인 및 외국종교단체의 취재나 그들에 대한 여하한 경로를 통한 지원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1990. 10. 30)

대만 - 종교단체의 대륙선교여행 신청을 허가함

대만의 《현시점 하에서 종교단체가 대륙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종교활동업무에 종사케 하는 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안하거나 등록된 모든 사찰, 교회단체 및 종교기구재단법인은 종교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 소속요원의 대륙파견을 內政部(한국의 내무부에 해당)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일을 처리하는 종교단체는 우선 소재지의 성시정부에 활동계획서와 입안, 동기증명 및 대륙에 갈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星島日報》 1990.10.30)

천주교 인쇄공장이 상해의 토산만에서 개막식을 갖다.

1949년 이래 처음으로 천주교 인쇄공장이 10월 30일 상해시 교외의 七寶區 土山灣에 설립되어 金魯賢 주교의 주관하에 개막식이 거행되었다. 하객들 가운데는 중국정부관리 및 홍콩, 캐나다, 독일, 미국 및 기타국가에서 온 천주교 대표가 포함 되었으며, 상해시 종교사무국 국장 王宏達 및 칠보구 통전부주임 王志高 등도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인쇄공장은 유럽의 천주교 창조기구로

부터 백만 달러가 넘는 찬조를 얻었다. (“Asia Focus” 1990. 11. 3)

중공당국은 소수민족 종교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중공은 8월말에 라싸에서 거행된 자치구 당보(黨報) 총편집 좌담회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공작을 전면 검토하였다. 그 주요관점은 종교관리의 실패로 인하여 소수의 민족분리주의자가 종교라는 허울을 이용하여 반당, 반사회주의와 조국분열을 획책하는 반혁명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소수민족지역 인민의 종교활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중공은 5개 자치구 군중의 종교활동에 대해 전면적인 정리작업을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종교활동을 법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수행하게 하며, 종교인사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합격증서를 발급하며, 소수민족의 당원에게 종교신앙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것과 일부사찰의 폐쇄 등을 포함하고 있다.

(《當代時事週刊》 1990. 11. 10)

사천 - 一貫道가 성행함

개방정책에 따라 수많은 종교활동이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관도라는 전통민간신앙에 대해 중국당국은 여전히 미신으로 보고 종교단체로 보고 있지 않다.

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8억 농민 가운데 90% 이상이 미신사상을 갖고 있으며 60%는 현재 미신활동 중이다. 사천성내에는 일관도 및 비밀종교조직이 과거 수십년간 끊임없이 확대되었고 심지어는 성도(成都), 중경(重慶) 등의 도시에 이르기까지 만연되어 신도는 농민 뿐만 아니라 도시 거주자까지 포함되어 있다.

內江市시장의 말에 의하면 일관도는 “천년성세”라는 유혹의 말로써 수많은 신도들을 끌어들이었다. 그는 합법적인 종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정책이나 일관도는 정치조직으로 봉건적이며 미신적인 현상이며 반당, 반사회주의적이며 반사개견지(四個堅持)의 반혁명조직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사람들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고 아울러 灰, 塵의 혼합물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기한 약이라고 떠벌인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는

작년 10월 처음으로 3곳의 비밀집회처소의 진상을 밝히고 아울러 여러명의 책임자를 체포한 바 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1990. 11. 12)

양회 위원회 확대회의의 중요결의

90년 8월 22일에서 28일 사이에 상해에서 개최된 전국양회 위원회 제2차 전체(擴大)회의는 91년에 북경에서 중국기독교 제5회 전국회의를 거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국회의의 대표선출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만들었다. 규정은 대표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아래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안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야 한다. 둘째, 교회에서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어느정도 역량이 있고 신체가 건강해야 한다.

동시에 회의 대표에 대한 연령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는데 새로 뽑는 대표의 나이는 원칙적으로 70세 이하여야 한다. 전국 양회의 본회위원은 나이가 80세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에 재선될 수 없다. (《天風》 총95기 1990. 11. 1)

대만 - 교회 총수가 곧 3천에 이를 듯

대만 “2000년 복음운동 추진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90년 1월에서 10월까지 대만교회는 대략 200 곳이 늘어났는데 1989년의 2666개의 교회와 합산하면 대만 지역 교회의 총수는 이미 2800여 곳이 되며 91년이 되면 교회총수는 3000 곳을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基督教論壇》 1284期 1990. 11. 11~17)

내몽고가 두 명의 주교를 축성하다.

중공정부가 인가한 내몽고의 공개교회는 최근에 두명의 주교가 새로이 축성되었는데 이것은 1957년 중국이 바티칸과 관계를 단절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두명의 새로운 주교는 72세의 郭正基와 71세의 朱問漁주교로 장차 내몽고 자치구에서 그곳에 흠어져 살고 있는 한족 천주교인을 위해 사역하게 될 것이다. 중국천주교 교무위원회 부주임 劉柏年은 내몽고는 4개 교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의 한 개는 종교구로서 성직자가 400명, 교우가 22만명이며 성당은 500 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公教報》 1990. 11. 23)

상해에는 300여명의 종교연구자가 있다.

상해에는 300명이 종교연구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전문 연구원, 대학강사, 종교부서에서 일하는 간부 및 종교계지식분자 등이 포함된다. "개혁개방과 종교", "상부구조에 있어서의 종교의 위치와 작용", "사람과 종교", "종법적인 성격의 전통종교문제" 등을 주제로 하는 학술토론회가 사회각계인사의 주의를 끌고있다.

1981년 상해사회과학원은 종교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듬해 상해시 사회과학학회 연합회도 종교학회를 설립했다. 이 두 곳의 종교연구기구와 단체는 당대 중국의 종교문제를 연구하는데 치중하여 매년 상해학자의 종교연구논문을 모아서 《宗教問題探索》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종교연구의 개방으로 학구적인 분위기를 활성화 됨의 따라 復旦大學, 화동사대와 상해사대가 설치한 종교문제와 종교지식강좌는 항시 만원사례이다. 사람들은 왜 종교신도들의 범죄율이 사회상의 평균 범죄율보다 훨씬 낮은지, 큰 사찰과 예배당마다 수많은 청년남녀들로 붐비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星島日報》 1990. 12. 1)

중국천주교 애국운동40주년 기념회

약 200명의 성직자가 11월 30일 인민대회당에서 거행된 천주교반제애국운동 40주년기념회에 참석하였다. 이 기념식은 중국천주교애국회부주석, 북경교구주교 傅鐵生이 주최하였으며 중공통전부부장 丁關根, 부부장 張鑿作, 종교사무국국장 任務之 및 각 종교대표가 고르게 참석하였다.

국무원부총리 吳學謙은 금후 당과 정부는 여전히 진지하게 각항의 종교정책을 관철할 것이며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법에 의하여 공민의 신앙자유와 정상적 종교활동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교를 이용한 위법적인

범죄활동을 제지하고 타격을 가해야 하며 어떠한 외국의 종교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의 종교사무에 간섭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人民日報》 1990. 12. 1)

광둥성 - 종교장소관리규정의 수정이 가능

광둥성 종교사무국국장 劉文焯은 1월 17일에서 24일까지의 홍콩 방문기간중에 장차 종교활동장소에 관한 관리규정이 수정됨으로써 해당지역의 종교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規定》은 광둥성의 실제형편에 따라 제정될 것이며 종교활동을 압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광둥성 종교장소관리규정》은 88년 3월에 공포되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과거에 정부가 개방을 허가하고 활동이 정상적인 곳은 동기수속을 허용해 준다. 과거에 허가를 얻었으나 현재 관리가 혼란스러운 곳은 정돈을 도와 효과를 얻은 후에 동기한다. 새로 개방신청을 한 곳은 먼저 애국조직의 의견을 물어서 조사선별한 후 합법적으로 종교활동장소를 안배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방 여부를 확정한다.

(“Asia Focus” 1990. 12. 1)

(《明報》 1990. 12. 11) (《公教報》 1990. 12. 14)

전국종교회의가 북경에서 거행됨

전국종교회의가 姜澤民, 李鵬, 喬石, 吳學謙, 丁關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월5일부터 9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되었다.

국무원 총리 이봉은 해외적대세력이 종교를 이용해 중국내정을 간섭하는 데 대하여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밖에 당의 신앙자유정책을 집행관철함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공민의 신앙자유권리와 종교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현상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종교사무국국장 任務之는 폐막식에서 종교사무국은 91년에 종교법규를 제정하고 동시에 각급

정부의 종교기구를 설치하여 종교업무의 신기원을 개척하고, 나아가 당의 종교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人民日報》 1990.12.6)

(《文匯報》 1990.12.10)

북경, 상해, 복건의 신도가 성탄을 축하함

수천명의 개신교도와 천주교도가 북경의 20여 곳의 예배당에서 성탄축하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문예활동과 크리스마스이브행사 및 자정미사가 포함되었다. 북경에는 현재 4만여명의 천주교인과 5천여명의 개신교인이 있다.

이밖에 천주교 상해교구에 소속된 40여 곳의 성당도 성탄미사 및 각종 경축행사를 거행하였다. 만명을 헤아리는 천주교인이 각 성당의 성탄미사에 경건하게 참여하였으며 사람수도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증가하였다. 상해시 개신교회도 20여 곳의 교회에서 음악예배 및 촛불예배 등 각종 경축행사를 거행한다.

북건의 큰 예배당에서도 성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있었으며 북주기독교 花巷堂에서는 23일에 구세주 성탄절 음악예배 행사가 거행되었으며 2000명의 신도가 참석하였다. 고요한 밤에는 영어성극 “성탄절이야기”로 영광을 돌렸으며 25일에는 全市 기독교성탄절 음악찬미회를 거행하였다. 북주의 天堂堂, 鋪前堂에서는 촛불예배로 드렸다. 북건성에는 현재 890여곳의 교회와 50여만의 교인과 1천여곳의 집회처소가 있다.

(《人民日報》 1990.12.25)

(《信報》 1990.12.25)

夏其龍은 97년 이후에도 천주교를 번질시키지 않을 것을 보증함

홍콩 천주교 社區傳播處 주임 하기룡(夏基龍) 신부는 홍콩천주교는 97년 이후에도 홍콩에 그대로 머무를 것이며 주권의 변화가 결코 교회의 본질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점은 중국이 과거 수십년간 교회변조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

지 못했던 것과 동구의 예로써 설명될 수 있다.

홍콩에서 천주교가 자리를 잡은 지는 150년이 되었으며 12월 27일부터 10개월 동안 이에 대한 경축행사를 거행할 것이다. 아울러 교황을 홍콩에 초청하여 기념행사 폐막식의 미사를 집전하게 할 예정인데 교황의 참석 가능성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明報》 1990.12.27)

교황은 중국신도가 더욱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함

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12월15일 중국정부에 대해서 천주교인들에게 더욱 많은 종교의 자유를 주도록 호소했으며 아울러 중국의 신도들에게 상호간에 화목하기를 힘쓰는 정신을 발양하도록 호소했다.

그는 주교, 신부 및 교인의 체포사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볼 때 중국대륙의 교회는 오랜 세월이 경과해야만 비로소 원만하고 공개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교황과 카톨릭교회와 공존 및 융합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교황은 동시에 강렬하고도 간절하게 모든 중국 교우들에게 서로 일치하고 화목하기에 힘쓰기를 호소했다. (《公教報》 1991.1.11)

經文卷四(성구암송)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12:1)

所以弟兄們! 我以 神的慈悲勸你們, 將身體獻上, 當作活祭, 是聖潔的, 是神所喜悅的; 你們如此事奉, 乃是理所當然的。
(羅馬書12:1)

아래 기사는 방송통신대학 학보 4월 1일자 기사이다.
박혜영씨는 본 선교회 회원으로 번역부에서 활동중이며 "중국을 주께로"
회지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이번에 졸업하는 91학년
도 졸업생 8천여명 중에서
수석졸업을 하게된 중국어
과 박혜영(86학번, 37세) 학
우를 만나 보았다.

『무척 기쁘고 부담스럽기
도 하다』고 소감을 밝히는
박혜영씨는 어디에서나 만
날 수 있는 평범한 주부의
모습이었다.

『작년 5학년때 집안사정
으로 시험을 잘 치르지 못
해 수석졸업은 전혀 뜻밖이
였다』고 말하는 박혜영씨의
성적은 평점 4.3 만점에
3.74. 『자신의 성적이 과거
수석 졸업자의 성적을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닌지』 또한
『보다 젊은 사람이 차지해

“기쁘고도 부담스러워요”

수석졸업자 박혜영씨 <중국어·37세>



학분야인 중국어과에 86년
편입학하게 되었다.

재학중 어려웠던 점을 물
자『젊을 때와는 달리 집중
해서 공부할 때면 체력이
못미쳐서 조금은 어려웠다
고』 밝히며 『공부는 때가 있
는 말을 조금은 실감하
게 되었다고.

공부방법은 한학기 동안
의 학습계획을 짠 이후 하

분한 시간은 많지 못해, 실
것이나 시장가는 틈에도 학
습 테이프를 들으며 살았다
는 박혜영씨의 열성에 수석
의 비결이 그곳에 있었으리
라 짐작이 갔다.

후배들에게 좋은 학습방
법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부
탁에『한 학기에 5 과목의 교
재는 실제로 많은 분량이므
로 자신의 관심분야에 최우
선을 두어 흥미를 갖고 학
습에 임하면 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중
국어문선교회』 활동에 최선
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끝으로 후배들에게는 『각
자가 처해있는 나름대로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보
낼수 있으리라』 강조하며 『인
생의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함』을 당부한다.

일을 사랑하는 수석졸업
자의 맹렬(?)스런 모습에
서 사회의 유능한 일꾼으로
방송대를 빛낼 미래상을
함께 볼 수 있었다.

하루분량 미리 계획, 꾸준한 학습결과

야 할 자리를 나이는 주부
가 차지하게 된 것은 아닌
지』 무척 부담스럽다고.

박혜영씨는 의료보험조합
에 근무하는 남편 사이에국
민학교 6학년과 4학년에
다니는 두아들을 두었으며
75세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다한다. 지난75
년 서강대학교 국문과를 졸
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
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
하고 평소 관심이 많았던어

루 하루 목표를 미리 정해
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공부
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주부인 관계로 차

정기세미나 안내

<4월 정기세미나>

주제 : 방한중국교포 제자훈련의 실제 사역보고

강사 : 이경준 (네비게이트 간사)

일시 : 1991년 4월 29일 (월) PM. 7:00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T. 594-8038)

<5월 정기세미나>

주제 : 성경전달 사역에 대하여

강사 : 김구희 연구원 (모퉁이돌선교회)

일시 : 1991년 5월 27일 (월) PM. 7:00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6월 정기세미나>

주제 : 타문화권 선교의 준비

강사 : 박선진 선교사(지구촌선교회)

일시 : 1991년 6월 24일 (월) PM. 7:00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 대만에서 온 편지 -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박교수님 내외분과 모든 중국어문선교회 여러분들께 문안 드립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 궁금하였는데 이번에 보내 주신 「중국을 주께로」(1991년 1, 2월 10호)라는 선교지를 받고 근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지를 통하여 박교수님과 여러 간사님들께서 눈부시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곳 대만에 있기 때문에 '중국어문선교회'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주님의 거룩한 선교사역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자세로 미력하나마 '중국어문선교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곳 대만에서 직접 선교하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틈틈이 번역하여 정리해 놓은 '중국교회'와 '중국선교'에 관한 자료들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문선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장래에 중국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게 이곳 대만에서 직접 현장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제가 섬기고 있

는 '平安堂'에서 중국인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직접 밖으로 나가(공원, 학교, 버스터미널 등) 전도지를 배포하는 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 대만 타이베이시에 '중국어문선교회' 해외지부를 설치해 보는 작업도 기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서 '중국어문선교회'를 통하여 훈련받는 훈련생들에게 더욱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교수님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향은 어떠신지 저에게 연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교수님의 가정과 섬기시는 '중국어문선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1. 3. 15

타이베이시에서

宋炳權

陳秀枝 宣教士 敬上

榮圭

平安!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문안 드립니다.

박성주 대표간사님을 비롯 이동화, 김한성, 석귀희, 김용배, 김성순... 등의 간사님들과 중국어문선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도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벌써 한달째 되는 날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대사관으로 금년에 함께 온 7명의 원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다시 公文을 교육부에서 해당대학으로 보낸다고 하니 다행스런 일이지요. 政治大 三民主義研究所에 지망했습니다. 오던 날 이후 語學訓練을 해야겠기에 國語日報에 다니고 있으며 생활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늘 생각은 있지만 이렇게 게으르다 보니 소식이 늦었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도합니다.

1991. 3. 29.

대북에서 이성철 드림

中華民國台北市和平東路3段
341巷 22號 4樓

李成哲

- 광주에서 온 편지 -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전 9:1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리고 선교회 여러 회원님들.

작은 사도바울이 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선교회를 방문하고 난 후 선교회의 활동사항, 업무

들을 더욱 친근하게 알 수 있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설교 테이프를 보내드립니다. 이 설교테이프가 고국을 방문하고 귀국하는 중국교포들, 단기 여행자들을 통해 중국의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되어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보내드리오니 꼭 귀하신 일들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선교에 대한 소망과 꿈을 안겨주

시는 선교회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테이프를 되도록이면 계속적으로 보내겠습니다.)

1991. 3. 12

광주에서

임순자 올림

회원동정

1. 협력간사로 봉사하던 남경화 자매가 4월 1일부터 교육부 소속 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선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부지민 간사가 본 선교회와의 협력사역을 마치고 3월 초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대만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만주소 - 中華民國 基隆市 武昌街 1之3號 3F
전화 - 001-082-2-462-1568
3. 본 선교회 사역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온 박혜영 회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전체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4. 김묘경 회원이 2월 28일 득남 하였습니다.
5. 교회정 회원이 4월 5일 영빈 관예식장(신림동)에서 결혼 하였습니다.
6. 박지화 전도사가 “촛불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본 선교회 후원 기도모임을 매월 갖고 있습니다.
7. 평산교회의 중국선교 사역자인 이철 회원이 3월 12일부터 3월 28일까지 대륙선교여행을 다녀온 데 이어 4월 2

일에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방콕, 말레이시아, 홍콩)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8. 본 선교회 회원인 박주서, 이민선, 이영숙, 임종명, 김영숙, 강정애 자매와 김원영 형제가 4월 6일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9.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회원들은 본 선교회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재정보고 (2월)

수입	지출
전월이월 -1,486,690	사례비(5인) 1,000,000
후원금 1,452,000	도서인쇄비 404,200
현지지역사물	임대료 300,000
위한현금 26,000	고재개발비 100,000
특별현금 500,000	철야기도회 15,000
고재판매대금 400,000	통신비(전화) 28,840
외부세미나강사로150,000	강사로(세미나) 30,000
	후생비 41,110
	소모품비 39,770
	우편발송료 68,520
	관리비(연료비외) 202,700
	여비교통비 5,000
	고재비(음료외) 8,000
	출장비(세미나강사) 5,740
	전기류수리비 25,000
	현지지역자워한예치금26,000
	선고여행예치금 150,000
	강사로 지급 150,000
수입계 ₩ 1,041,310	지출계 ₩ 2,679,880
	차기이월 ₩-1,638,570

♡ 후원자상황(2월) ♡

고희정, 구규식, 금병달, 강정애, 김구성, 김승원, 김성순, 김근수, 김학주, 김순임, 김길자, 김준미, 김승심, 김한성, 김현주, 김중기, 김원영, 김신봉(1,2), 김성근, 남경화, 노숙자, 노재은, 문정희, 문승민, 박성주, 박지식, 박지화, 박종표, 박혜영, 박선남, 박순희, 박정숙(11-2), 박애숙, 박희정, 박주서(1,2), 방지거, 빈미정, 서진, 서기원, 신순남, 신용식, 석귀희, 서육희(1,2), 이지순, 이덕형, 양혜선, 안병국, 윤명자, 윤연자(1,2), 이은자, 이영숙, 이승열, 이석형, 이영희(1,2), 임순자, 임중명, 오영미, 전옥규, 정석호, 정재순, 장경순(1,2), 장영숙, 장혜량, 한승희, 황매화, 안천, 무명: 1명.
 단체: 동송교회, 동부교회(대구), 신림교회, 평산교회, 중정교회, 방송대성경반.
 ◎특별현금: 이동화
 ◎지정현금(부식): 김용배

특별기금적립현황(2,3월)

명목	이월	수입	지출	잔액
선고여행예치금	990,000	300,000	-	1,290,000
현지지역자워한현금	178,660	26,000	-	204,660
출판현금	1,201,000	700,000	700,000	1,201,000
사무실마련비	-1,490,000			-1,490,000
레이저프린터기대금	-1,800,000			-1,800,000
중국고포선고현금	390,000	100,000	31,500	458,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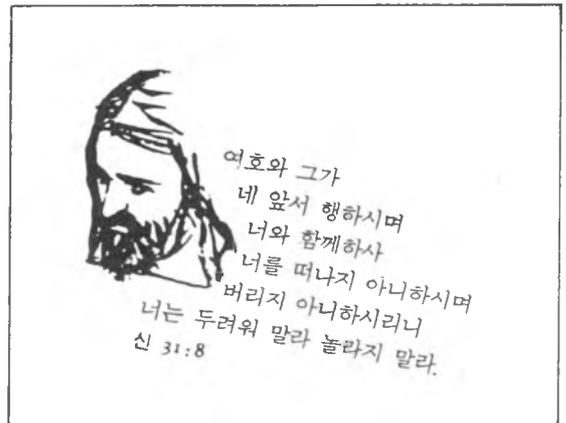
◎중국고포선고현금: 신림교회.
 ◎출판현금: 박성주(3월)

재정보고 (3월)

수입	지출
전월이월 -1,638,570	임대료 300,000
후원금 1,574,630	사례비(5인) 1,000,000
특별현금 530,000	교육지원비 100,000
고재판매대금 50,000	관리비(연료비외)138,200
	출판사등록비 12,000
	강사로(세미나) 30,000
	우편발송료 8,000
	소모품비 48,970
	구독료(신문) 16,000
	선고현금(2,3월) 20,000
	지원금(LTC훈련) 60,000
	후생비 27,100
	통신비(전화, fax) 24,580
	선고여행예치금 150,000
	여비교통비 3,800
	찬조금(성경반) 30,000
수입계 ₩ 516,060	지출계 ₩ 1,998,650
	차월이월 ₩-1,482,590

♡ 후원자상황(3월) ♡

강정애, 김근수, 김길자, 김승원, 김신봉, 김한성, 김학주, 김성근, 김순임, 김성순, 김승심, 김현주, 김중기, 김준미, 노숙자, 노재은, 남경화, 문정희, 문승민, 박성주, 박종표, 박주서, 박혜영, 박지식, 박선남, 박정숙, 박애숙, 박희정, 박원석, 박희준, 백중원, 방지거, 빈미정, 서진, 서육희, 서기원, 서민혁, 신순남, 석귀희, 안병국, 안천, 이덕형, 이지순, 이은자, 이승열, 임순자, 임중명, 이효숙, 오영미, 전옥규, 정재순, 정혜수, 장경순, 장혜량, 조성남, 황매화, 한승희, 무명: 1명.
 단체: 동송교회, 신림교회, 동부교회(대구), 방송대성경반.
 ◎특별현금: 이동화, 이영구, 김용배.
 ◎세미나간식 현물: 서진.
 ◎도서기증: 전도책자(그리스안에서 성장) 및 테이프 다수: 소용화 목사
 초급중국어 I 30권: 이성철
 생동적인 교회성장: 금병달



기도편지

I. 중국선교를 위하여

1. 절강성에는 예배당 수가 1,800 곳이 있으며 이 밖에 집회소는 2,000 곳 있다. 반면에 전성을 통틀어 목회자는 99명 뿐이고 목회자의 다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신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
중국은 절강성 뿐만 아니라 전지역에 목회자가 부족한 상태로 신자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목회자가 양성 되도록...
2. 광주 중앙정부가 발급한 혁명부 선정자료 가운데 임헌고의 종교활동이 위법임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였다.
 - ① 집에서 군중을 모아 불법종교 활동을 함으로서 정부 대종교 활동장소에 관한 행정관 리 위반
 - ② 해외종교조직과 종교인사에게 국내에 들어와 종교활동
 - ③ 해외종교조직이 그에게 주는 헌금이나 신앙서적, 라디오 등 다량물품을 받아들이고 정부관련부처에 고지하지 않는 위반
 - ④ 출판부서 허락 없이 독자적으로 신앙서적 설교테이프 제작 배포한 행위이와 같이 최근 임헌고가 종교활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변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임헌고의 신변안전과 중국의 종교정책이 변화도록...
3. 많은 중국신도들이 극동방송(FEBC)과 세계의 소리(TWR: 홍콩)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방송선교 사업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4. 최근 북경발 뉴스는 “종교가 학생들의 생리와 건전한 방식을 위협하고 있고 종교를 신봉하는 중국 학생들이 날로 늘어 이미 위급한 상황에 도달했으므로 중국 당국은 효과적인 대응방침을 찾아 실천에 옮겨야 한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기독교인들은 해외기독교인들의 방문으로 공산당국에 의해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진다.

중국선교가 어려운 이 때 선교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연구되어 한국교회에게 효과적인 선교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II. 중국어문선교회를 위하여

1. 중국어문선교회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전회원 모두의 기도없이 “중국을 주께로”라는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허드슨테일러는 젊은 선교사들을 이끌고 중국 내지로 들어가며 “기도의 줄을 꼭 잡아 주십시오”라는 한마디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선교회의 다음과 같은 기도모임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 ① 매주 월요일 정오기도회를 위하여...
 - ② 매월 철야기도회를 위하여...
 - ③ 선교회 회원이 중심이 되어 직장, 교회, 스타디움 등에서 갖고 있는 기도모임(춧불기도회 등)을 위해...
2. 본 선교회 정기세미나가 4월에는 이경준(네비게이토 간사)형제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방한교포대상으로 1개월간 실시한 제자훈련사역을 보고하게 되는데 전회원이 참석하여 방한중국교포선교의 필요성과 제자화 훈련에 대해 배움으로써 회원 모두 방한교포선교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도록...
3. 중국어문선교회 복음전도단을 위하여...
 - ① 계속적으로 방한중국교포를 전도하는 데 필요한 전도, 양육, 봉사의 일꾼을 보내 주시도록...
 - ② 중국교포가 숙식하며 양육받을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시도록...
 - ③ 각 단체가 겸손한 자세로 협력하여 전도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4. 사업을 통해서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하여...
 - ① 중국에 들어가 선교하기를 원하는 회원들의 사업이 번창하도록...
 - ②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이 주님의 인도 아래 세워지도록...
5.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 모임을 위하여...
 - ① 중국어성경반(방송대서울지역, 방송대인천지역, 서울대, 인하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중국선교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 ② 각 대학마다 중국어성경공부반이 조직되어 젊은 선교의 일꾼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6. 선교회 회원중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하여...
 - ①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동화 총무와 허정희 회원을 위하여...
 - ② 당뇨병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김일봉 회원이 빠른 시일내에 회복 되도록...
 - ③ 누골을 다쳐서 치료 중인 박혜영 회원이 빨리 회복되기 위하여...
7. 中譯, 韓譯에 능통한 실력있고 헌신된 일꾼이 중국어문선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8. 선교사역에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도록...

알 림

1. 선교중국어연수 제3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료되고 제4기 연수가 4월 1일에 개강되었습니다.
2. 愛華출판사에서 영상중국어 교재 「老外陝京城」이 발간되었습니다.
3. 2월 정기세미나는 KCIT사무국장인 김베드로 회원을 강사로 모시고 「중국의 교육제도」를, 3월 정기세미나는 김복남 전도사를 강사로 모시고 「중국선교전략」을 주제로 각각 세미나를 개최 하였습니다.
4. 2월 9일부터 시작된 지도자훈련과정(L.T.C)은 3월 2일로 초급과정, 3월 31일로 중급과정을

- 각각 마치고 4월 6일 고급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사: CCC의 금병달, 최경희 간사)
5.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었던 방한중국교포 선교사역의 보고서가 중국어문선교회에서 편집되어 자료가 나옵니다. 방한중국교포를 대상으로 전도하기 원하는 교회나 단체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6. 초급중국어 I TV강좌 안내 (KBS 제 3방송)

시간: P.M 11:10-11:40

4월: 18일, 26일

5월: 4일, 13일, 21일, 29일

6월: 6일, 14일, 22일

7월: 1일, 9일, 17일, 25일

8월: 2일, 10일

편 집 후 기

개나리가 노랗게 어우러져있고 목련과 벚꽃이 만개하여 한껏 자태를 자랑하면서 봄소식을 전하고 있는 계절.

회지를 낼 때마다 다음호 회지는 여유있게 만들어야겠다고 늘 다짐하지만 또 여전히 바쁘고 정신없이 서둘러서 편집을 마치고 길게 숨을 내쉽니다.

이번호 회지가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동역자(편집, 취재, 교정)를 보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지가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을 주께로” 회지가 중국선교를 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석)

